RETURN ITEM TO EAST ASIAN LIBRARY NOV 4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71 1982년 11월 4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November 4,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베이비·보너스에 쐐기 부유층에 지급 단절될듯

연방재무, "경제악화로 불가피"

(오타와)캐나다정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매달 $26.91씩 지급하는 베이비·보너스, 혹은 가족수당이 부유층에는 끊어질지도 모른다.

연방정부의 막·랄롱드 재무장관은 2일 노년복지 연금제는 그 규모를 삭감치 않고 종전같이 실시하는 대신 베이비·보너스는 꼭 필요한 가정에만 제한 지급될지도 모른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신임 랄롱드 재무장관은 정부의 세입이 종전같지 않고,경제 또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정부가 허리를 졸라매야 할 때는 개인의 수입정도와 무관한 「만인동등의 사회복지 원칙」(Universality in social program principle)이 수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83년도 예산에서 베이비·보너스 지급규정이 바뀔 것인가 하는 질문에 현 단계로는 알 수 없다고 답변, 변경시기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1945년부터 실시, 캐나다의 사회보장제의 표본처럼 돼온 베이비·보너스로 정부는 금년도에 $22억을 전국의 약 7백만 어린이의 부모나 후견인에 지불했다.

노인복지연금(The old-age security)은 240만명에 $70억이 지급됐다.

랄롱드장관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당의 기본정신이 마치 만민평등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캐나다 자유당의 기본정신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히드 주총선서 압승

보수당 79의석중 75석 차지

(캘거리)앨버타의 피터·로히드 보수당 수상의 인기는 2일밤 밝혀진 주 총선 결과에서 입증됐다.

그가 이끄는 앨버타주 보수당은 79의석중 75석을 획득, 지난 총선 때보다 2개의 의석을 더 얻어 확고한 기반을 굳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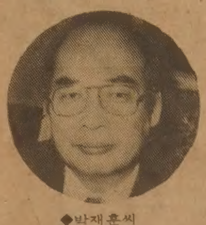
지난 71년 이후 계속 집권해온 로히드 수상은 이같은 강력한 지지는 모든 주민에 대한 특별한 책임감을 짊지워주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연방정부와의 에너지협상등으로 캐나다 전국 수상중 발언권이 막강한 수상중의 하나인 로히드 수상은 수년전부터 관심이 되어온 연방정계로의 진출에 관해 비록 연방 보수당의 당수직이 자기에게 제의되더라고 그것은 관심밖의 일이라고 재삼 천명했다. 연방보수당은 장기 집권의 자유당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 지도력 부족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79의석중 나머지 4석은 신민당과 무소속이 각기 2의석씩 나누어 차지했다.

이날 총선거의 투표율은 약 78%로 79년 총선의 59%보다 월등 높았다.

박재훈박사 목사안수

미주 장로회서, 김인환전도사도



◆박재훈씨

◆김인환씨

한인합창단 지휘자인 박재훈 박사와 오순절장로교회 김인환 전도사의 목사안수식이 미주한인장로교회노회 주관으로 오는 25일(목) 하오 7시30분 토론토영락교회에서 거행된다.

새로 안수받는 박박사는 동경음악학교, 웨스터·민스터 합창대학을 거쳐 한국 중앙신학과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크리스천신학을 졸업했으며, 65년 아주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 서울 음대, 장로교 신학대학 강사를 역임한바 있는 그는 현재 미주장로회 신학대학 토론토분교에서 종교음악을 강의하고 있다.

김인환 전도사는 한양대 공대와 장로회 신학대학 졸업후 토론토에 이민, 그동안 전도사로 시무해 왔다.

이들은 지난 5월 시카고에서 있은 미주한인장로회 총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했다.

〈여행사〉

신세계여행사	536－2155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북미여행사	366－0960
천우여행사	928－3335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CANADA SAVINGS BOND는 언제나 현금으로 찾을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이 된다. 이는 매년 가을에 한번씩 발행되며, 작년에는 주문이 폭주하여 마감일을 앞당겼읍니다. 저희는 이의 구입에 일체의 수수료를 부가하지 않고 모든 문의에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해외교민 대표 청와대 방문

(서울3일=연합)전두환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캐나다등지의 해외교민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정부는 "범죄와 부패가 없는 평화롭고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또한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지난 2년동안 사회 각분야에 걸쳐 안정을 되찾게 됐다고 전제하고 "여러분들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 발전하는 조국의 참모습을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해외교민대표들은 21명으로 캐나다에서는 오기송 총연합회회장, 박인순 토론토한인회장, 송광석 오타와한인회장 3명이 포함됐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중공과 협상 용의

「미그19」기 처리문제

(서울 3일=연합) 이범석 외무장관은 3일 일본기자단과 만나, 중공은 최근 중공조종사가 한국으로 몰고 온 미그19전투기의 처리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정부에 아무런 제의를 해온바 없다고 밝히면서 만약 어떠한 제의를 해온다면 한국정부는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한국정부는 중공과 외교관계가 없으나 제3국을 통해 기체의 처리문제를 협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서울로 탈출한 중공조종사가 대만으로 망명할 것을 허용, 31일 서울을 떠나게 했으나 기체는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밝히면서 처리를 보류해왔다.

이장관은 다른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은 최근의 소련관리들의 한국방문을 한국과 소련간의 관계개선의 징조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북한 중재용의 스위스 국무장관

(제네바 2일=연합)스위스정부는 남·북한이 요청한다면 언제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에 중재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레이몬드·프로브스트 국무장관이 말했다.

프로브스트장관은 2일 스위스주재 외신기자단의 연례회의에서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으로서 분쟁지역의 당사국으로부터 중재요청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기본 외교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양측으로부터 합의없는 요청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남북한이 함께 요청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한이나 북한 어느 쪽이 스위스정부에 남북한 대화를 위한 중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프로브스트장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인터뷰〉

은반의 요정 윤효진양

아이스카페이즈서 특A급 대우

"미국에서 한국 후배양성 하고싶다"

11월2일 하오6시 시내 영 스트릿과 칼리지·스트릿의 메이플·립 가든즈 앞길이 몰려드는 인파로 붐볐다.

하키인파인가 생각하겠지만 오늘은 세계유일의 스케이트·쇼단 「아이스 카페이즈」 인파였다. 메이플 립 가든즈에 입장하니 화려한 여인들의 무대예술이 펼쳐지고 있다. 단단한 빙판을 수놓는 피겨 스케이터들, 그 중에서도 조그마한 동양여성 윤효진(22·Yun Jean)양의 연기가 눈에 띄였다.

순회공연 때문에 보이·프렌드를 사귈 틈도 없다는 윤양을 무대뒤에서 잠깐 만나 보았다.

"약간 피곤해요. 그러나 토론토에는 언니(윤방희)도 살고 있고, 이곳에서는 수년전에 8개월동안 연습한 적이 있어 그다지 낯선 곳이 아니예요. 토론토 교포들에게 더 좋은 연기를 보였으면 해요"라고 말했다.

75·76년에 한국 피겨 스케이팅선수권을 차지했고 76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4위를 차지한 윤양은 "그때 규정종목에서는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나 자유종목에서 점수를 잃어 오늘 같이 공연하는 미국의 도로시·해밀양에게 금메달을 뺐겼어요"라고 회상했다.

80년 프로로 전향한 윤양은 아이스 쇼단 「아이스 카페이즈」에 입단, 81년 1년간은 무대공연을 쉬고 코치만 맡았다가 금년 8월 재계약 이후 미국 미네소타 둘루스에서 시작, 뉴욕, 필라델피아, 피츠버그등을 거쳐 1일 토론토에 왔다. 토론토에서 오는 9일까지 9차례 공연에서 윤양의 역할은 메인 프로그램인 「바다의 요정」의 공주역이다.

토론토공연이 끝나면 몬트리얼과 버팔로를 거쳐 내년 봄까지 북미순회공연을 계속한다.

윤양은 작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이스쇼 「호두까기 인형」의 주연을 맡아 격찬을 받았었다.

「아이스 카페이즈」는 이제 세계유일의 「아이스쇼단」이다. 수년전까지 유럽의 「홀리데이 아이스」, 미국의 「아이스·폴리스」등 3개 쇼단이 있었으나 이제는 모두 자취를 감추었다.

윤양의 출연료는 「아이스·카페이즈」 65명의 멤버중 특A급이나 그 내용만은 절대 비밀이라고 동쇼단 홍보부장 마이크마더스씨가 전했다.

프로·아이스쇼에서 몇년 더 활약한 다음 코치수업을 쌓을 예정이라는 윤양은 "한국의 후배들을 미국에 초청, 훈련시키는 것"이 장래의 포부이며, 결혼은 수년후에 생각해야겠다고 말했다.

「아이스·카페이즈」의 토론토공연은 오는 5일(금)까지는 매일 7시30분이다. 6일(토)에는 12시와 4시, 8시, 7일(일)에는 2시, 6시에 있다. 【유】

구독신청은 533－2361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얼음위에 선 남녀 병사들」 36명의 「아이스 카페이즈」 단원들이 사열중이다. 왼쪽에는 한국이 낳은 「은반의 요정」 윤효진양이 포즈를 취했다. 윤양은 2일~7일까지 메이플립스가든에서 벌어지는 「아이스 카페이즈」쇼단의 「스케이트 얼라이브」의 주연으로 출연중이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WE'LL TRADE YOU PROFIT FOR SPACE"
"소매업을 위한 또 하나 전통의 도매상이 여기 있읍니다"

품목
○모든 장난감종류
○각종 문방구
○재봉에 관한 종류
○하드웨어 종류
○스타링 종류
○Pet Supplies
○Baby Products(어린이용 기구)
○전기기구 종류(전기코드, 밧데리)
○고무제품
○Hair Care
○집기종류(House Ware)
○알미늄, Foil종류
○Glass Ware
○Cleaning Aid

GOODWIIL SALES LTD. 88 STREGIS CRES SO., DOWNSVIEW (킬과 쉐파드북쪽) ☎ 630－5401 ※주문 환영 ※철저한 신용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e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부동산업자 호경기
매매량 작년보다 41% 늘어

토론토 부동산위원회는 지난 10월중 주택 매매량은 81년도 10월보다 무려 41%가 증가했으나 매매가격은 토론토 주변의 경우 지난 6월에 비해 $1천내지 $2만가 떨어졌다고 2일 발표했다.

10월중 토론토 지역에서 매매된 부동산값은 평균 $94,689짜리로 6월보다 $3,658이 떨어졌다.

부동산업자들은 매매증가및 가격하락의 이유로 이자율의 하락세, 연방및 주정부의 지원책, 시장에 나온 재매매 주택(Resale Houses)의 수가 많은 것을 이유로 꼽았다.

10월 MLS(Multiple listing service)를 통해 판매된 2,546건중 143건만이 새집이었고 나머지는 기존주택이었다.

동국대 동문회 27일 연말파티

동국대학교 동문회(회장 정관풍)의 연말파티 "동국인의 밤"이 오는 27일(토) 하오7시 레슬리와 에글링턴의 인·온·더·파 호텔에서 열린다.

회비는 커플당 $40.

연락처는 844-2922(Mr. 정), 421-5613(Mr. 오), 481-9373(Mr. 김)

〈동창회모임〉 배재동창 총회

토론토의 배재고교동창회(회장 손명수)는 5일(금) 하오9시 손명수태권도장(2188 Bloor St. W. 전화 763-1155)에서 정기총회를 연다.

$3만 위폐 훔친 법원청소부
2년동안 도망다니다 징역 8개월

법을 다스리는 법원을 청소하던 경비원이 위조지폐를 훔쳐, 숨겨둔 죄로 빗자루대신 쇠고랑을 찬채로 징역 8개월형에 처해졌다.

2년전까지 온타리오지방법원 청소부로 있던 알렌산더·링크씨는 1일 상오 자신이 일하던 법정에 서서 3만달러어치 위조지폐를 훔친죄로 6개월 징역형에 덧붙여 2년동안 도망다니던 죄목으로 2개월이 추가되어 도합 8개월의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링크씨는 80년5월 법원창고 문짝을 뜯어내고 들어가 그안에 있던 미화 3만달러의 현금뭉치를 훔쳐 노바스코시아은행의 안전금고속에 보관시켜 두었다.

이돈은 위조지폐로 연방경찰 합동수사본부의 산텔리형사(전대통령 살해음모를 수사한 형사)가 위조화폐사건을 수사중 법원에 증거물로 제시했던 것이다.

경찰은 수사끝에 잠적한 링크씨를 찾아내고 소환영장을 발부했으나 링크씨는 멀리 도망, 2년동안 노바스코시아에서 숨어있다가 할로윈·데이(10월30일)저녁에 연방경찰에 체포,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200달러이상의 절도죄에 해당하는 2년형을 요구했으나 재판에서 링크의 변호사 어윈·코지브로 는 "휴지에 불과한 종이조각을 훔친죄가 어떻게 200달러이상의 절도에 해당되는 2년징역형이냐"고 변호, 재판정은 링크에게 200달러이하의 절도죄에 해당하는 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대각사 설립자 김경임씨 별세

토론토의 대한불교 대각사 설립자인 김경임(불명 평등성)씨가 2일 오전 4시45분 미시사가 병원에서 72세로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장남 유일환, 차남 동환씨와 딸 다섯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토론토에 살고 있다.

발인은 4일(목) 오전 10시15분, 장지는 St. James Cemetry이다.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菊花의 사나이 〈101〉

29분의 1 ⑥
犯人은 女子일수도… 그러나 手法이

자신이 아무리 깨끗해도 수사관과 마주 앉으면 잔뜩 긴장하고불안해진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와 연루될 수도 있기때문이다.

박세기는 유난히도 겁먹은 표정이었다. 마인이 수사관임을 밝히자 금방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더듬는 것이었다.

『무, 무슨 일로…』

마인은 그를 데리고 부근 다방으로 들어갔다.

『댁에 갔다가 이리 오는 길입니다.』

『무, 무슨 일로…』

『모세(毛世)라는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마인은 상대방의 반응을 날카롭게 살피며 다짜고짜 물었다.

『모세요? 모세가 누군가요?』

『잘 아실텐데?』

『모, 모릅니다. 이상한 이름이군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지난 12월4일에는 무얼 하셨나요?』

『12월4일이요? 전 지난11월20일에 유럽에갔다가 12월7일에 돌아왔읍니다.』

『그래요?』

마인은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는 태우지도않은 담배를 재떨이에 구겨넣었다.

박세기의 진술은 사실이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그는 틀림없이 11월20일에 출국해서 12월7일에 입국한 것으로 되어있었다.

『남자쪽만 꼭 범인이라고 할수도 없지 않아?』

『그렇긴 합니다만…』

두번째 집을 찾아가면서 마인과 김반장이 나눈 말이었다.

『그렇긴 하지만 꼭야?』

『여자가 토막살인을 할수 있을까요?』

『급하면 무슨 짓을 못해?』

『하지만 박스를 사간 자도 용달차에 짐을 부친자도 다 남자였읍니다.』

『남자 여자 혼성팀인지도 모르지.』

『여자가 끼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읍니다. 모세가 W호텔중국식당에서 한 여자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혹시 그 여자가 그를 죽였을지도 모르지요.』

『하여간 모세라는 인물한테 많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도무지 신원이 드러나지 않으니 이건 숫제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지 않아.』

『전 범인보다도 피살자한테 더 흥미가 갑니다.』

제2의 집에대해서도 똑같은 수사가 반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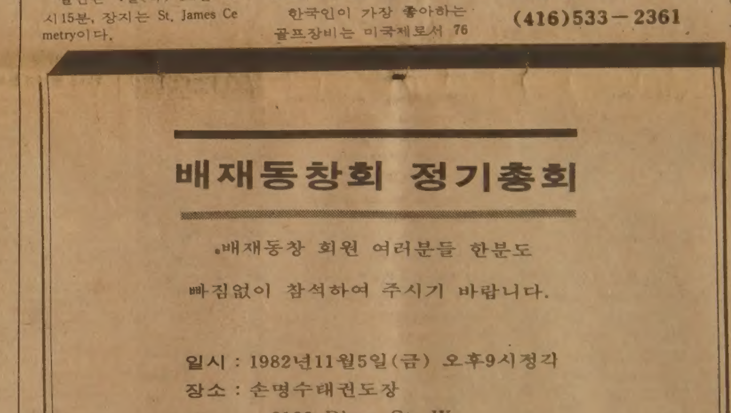
그집은 단층 양옥으로 도시의서쪽에 위치해 있었다.

바깥 주인의 이름은 서치수(徐治洙). 51세로 모대학 경제학 교수였다. 이사온 날짜가 11월29일로 가능성이 희박했다. 모세가 피살되기 엿새전에 강남에서 이사왔기때문에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킬수도있었지만 마인은 미련을 가지고 학교까지 찾아가 서박사를 만나보았다.

서박사는 대머리에 신경질적으로 생긴 사람이었다. 마인은 상대가 교수인만큼 매우 정중하게 대했다.

『내 일생에 형사가 찾아온 건 당신이 처음이요.』

그는 형사가 찾아온 것만으로도 매우 수치스럽다는듯 말했다.



朴男 그림

월남자녀 한국도착
고아생활중 부친찾아

(서울2일=연합) 월남전 당시 한국인아버지와 월남인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두 어린이가 2일 아버지 나라에 도착했다.

11살 영훈군과 9살 옥희양은 사이공(현 호·치·민시티)을 떠나 방콕서 고아생활을 하다가 타이랜드주재 프랑스대사관의 도움으로 부친 배태호씨를 만났다. 이날 "전쟁통에 영영 잃어버린"것으로 알았던 자녀들의 손을 꼭 쥐고 김포공항에 내린 배씨는 74년10월 월남서 귀국, 자녀및 부인과 헤어졌으며 다음해 돌아가려 했으나 월맹군이 사이공을 함락하는 바람에 생이별 당했다.

부인은 76년9월 사망하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유언했다.

교민친선 탁구대회
개인·복식·단체 3종목

교민친선탁구대회가 캐나다 탁구협회 주관으로 27일(토) 오전 9시 웨스트·우드 쥬니어고등학교(994 Carlaw Ave.; Carlaw Ave.×West Wood Ave.)에서 열린다.

코리언·저널 창간 1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개인전(남·녀), 복식, 단체전등 3개종목으로 나누어 개최되며 개인전은 대표팀과 OB팀(만 35세이상)으로 나누어진다.

회비는 단체전 $30, 개인전 $5, 복식은 $7이며 장롱은 각 종목별로 우승과 준우승 트로피를 시상한다. 심판위원장은 김동천씨.

한국골퍼들 주 1~4회 행차

(서울 2일=연합) 한국 골퍼의 대부분은 건강을 위해 골프를 치며 이들은 골프장이 더 많이 생기고 골프장 사용료를 내릴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박용민교수가 골퍼 320명을 무작위 추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골퍼의 72.6%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골프의 가장 큰 장애」라고 지적했다.

골퍼의 87%는 연령이 40대로서 월평균 수입이 1백만원(미화 1,350달러이상) 이상인 기업주 또는 경영인이다. 47%는 일주에 1~4회 골프장에 가며 월평균 324달러를 소비한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골프장비는 미국제로서 76%가 미국제를 사용하며, 일본제 사용자는 16%이며, 한국제 사용자는 2.4%에 불과하다.

키리렝코 사퇴 소련정치국에 변동

(모스크바)한때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의 유력한 후보로 지목되던 안드레이·키리렝코 정치국원겸 서기가 건강상 이유로 사퇴했다.

모스코바의 외교소식통은 2일 키리렝코의 사퇴가 11월 중순의 소련공산당 중앙위 총회에서 정식 발표된다고 전했다.

키리렝코는 지난 8월31일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브레즈네프 서기장을 마중 나간 이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교민동정

◆호세환(인벤토리 비지네스)=최근 중국인 경영의 장의사 토론토·메모리얼·퓨너럴·홈에서도 근무하기 시작했다.

호씨에 의하면 장의사는 시체처리부터 장례 일체를 맡아 하며 경비는 관과 장지의 등급에 따라 다르며 최소 $3천이상 든다고.

토론토·메모리얼·퓨너럴은 721 Bloor St. W.(크리스티 섭웨이)에 위치하며 호씨의 전화번호는 536-6250.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겨울스포츠의 꽃 스키를 즐깁시다 ①

박경태(온타리오 스키협회회장)

【편집자주】「겨울의 나라 캐나다」에 또다시 스키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금년초에는 한인스키협회도 창설돼 교민들간에 스키붐이 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지는 앞으로 10여회에 걸쳐 연재되는 이난을 스키협회 회장 박경태(39)씨의 『초보자를 위한 스키상식』을 연재한다.

스키경력 20년의 박회장은 한국 스키부대 소대장과 대한스키협회 이사직을 거친 베테랑이다. 박회장은 교민들을 위한 스키강습을 매주 토요일 토론토인근 스키장에서 펼칠 계획으로 있다.

스키의 첫 걸음

폭 쌓아진 흰눈 때문에 온 천지가 흰눈이 뒤덮힌 높은 산봉우리에서 경사(slope)를 따라 설연을 날리며 활행하는 멋진 광경은 세상의 모든 피로움과 이국땅에서 얻은 심신의 피로함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는 낭만일 것이다.

스포츠는 수많은 종목이 있으나 스키만큼 장쾌하고 심신을 즐기며 단련하는 스포츠도 드물다.

스키는 한마디로 두개의 목판을 발에 걸고 백설의 경사를 활행하는 운동이다.

쏜살같이 달리는 활강, 아기자기한 회전, 지구성을 기르며 산야를 활행하는 크로스-컨추리등은 모두 모두 신나고 멋있는 스포츠다.

스키는 지구의 인력을 이용하는 중력운동이기 때문에 산위에서 달릴때 자연력에 의해서 달려가는 것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면 멋있는 스라이딩(sliding)이 된다.

자연적 또는 합리적 원리를 무시하고 힘만 가지고 스킹(skiing)하는 것이나 기본에 들떠서 기본대로 하는 스키어는 오히려 부상을 입기 쉽다.

몇번 스키장을 출입해봤다고 해서 젊멋을 부리다 사고를 당하는 수가 있다.

초보자는 차분하게 기초에서 상급기술까지 충분한 지도를 받아 자유자재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면 누구나 활강의 드릴(thrill)과 멋진 폼(Form)으로 회전의 리듬을 즐길 수 있다.

스키도 운동역학상 다른 스포츠와 공통된 점이 많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 달리며 동작하는 기술을 습득해야 하기때문에 다소 어렵다.

모든 동작은 계속 반복하여 연습함으로써 자기 기술이 된다. 운동할때 운동원리를 무시하거나 벗어나면 넘어진다. 다른 스포츠와 다른 점은 넘어가도 눈이 푹 쌓여 있을때는 소파에 앉는 기분도 맛보고 설판에 떨어지는 스라이딩도 통쾌하다.

지금까지 겨울철 스포츠의 꽃이라고 하는 스키는 돈이 많이 드는 위험한 운동으로 잘못 인식돼왔다. 많지 않은 돈으로 온가족이 평생을 즐길 수 있고 약간만 주의하면 심신도 단련할 수 있다.

스키장을 오가는 차속에서 보이는 가로수에 피는 설화는 무엇에 비길 수 없는 진경들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태양빛에 채색된 모자이크 설원을 휘날리며 달리는 스키는 이세상에서 가장 멋을 지닌 운동이 아닌가 싶다.

자 다같이 가족과 함께 스키를 즐깁시다!

보위·쿤 스트라익·아웃!
14년의 메이저리그 감독관 끝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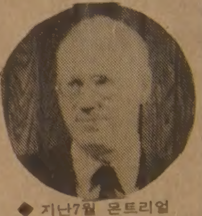
(시카고)프로야구·메이저리그에서 보위·쿤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하려 하고 있다.

내년 8월로 끝나는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쿤의 임기를 앞두고 1일 재신임투표를 한 내셔날리그의 구단주들은 찬성(재신임) 7, 반대 5로 쿤을 탈락시켰다. 커미셔너의 재신임은 구단주의 70%이상의 찬성표를 요해 내셔날리그에서는 9개구단주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반면 쿤을 비난하던 아메리칸리그 구단주들은 오히려 찬성 11, 반대3으로 쿤을 재신임했으나 메이저리그 커미셔너는 양대리그의 신임을 동시에 받아야 함으로 결국 커미셔너에서 탈락되었다.

투표가 끝난후 다저스의 오말리구단주등은 쿤에게 "내년 8월 임기까지 계속 커미셔너로 남아 있기를 요청", 쿤은 이를 받아 들였다.

프로야구 구단주들은 12월에 하와이에서 모여 후임 커미셔너를 선출할 예정이다.

법률가 출신으로 야구광이었던 보위·쿤은 지난 69년 메이저리그 커미셔너로 선출된후 구단주들의 횡포를 막고 선수들의 마약복용등에 출전정지를 내리는등 엄격하기로 유명했다.



◆ 지난7월 몬트리얼 올스타게임에서 연설하는 보위·쿤커미셔너

배재동창회 정기총회

•배재동창 회원 여러분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2년11월5일(금) 오후9시정각
장소 : 손명수태권도장
2188 Bloor St. W.
(at Runny 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배재동창회회장 손명수

확장 이전

케네디 꽃집

■각종 Arrangement ■Plant화환
■주문배달 ■꽃 도산매

2196, 2252-4 BLOOR ST.W.
762-1572

낙엽이 지고 스산한 가을이 스쳐가고 있읍니다. 못다한 일들이 쌓여지고, 우울과 권태만이 낙엽처럼 뒹구는데 아늑하고 감미로운 멜로디가 흐르는 "그라나다"에서 가을을 음미하세요.

산뜻한 왜식과 깔끔한 한식이 여러분의 구미를 돋구어 줄 것입니다.

부디 오셔서 따뜻한 "정종"에 "오뎅", "사시미","스시", 덴뿌라, 쓰끼야끼, 생선구이등과 여러가지 한식으로 건강을 돌보세요.

·고급레스토랑
그라나다

영업시간
오전 8시~새벽 1시
토요일 : 12시~새벽 1시
※일요일은 문닫습니다.

파킹장 오후 8시 이후 무료

※피로연, 회갑, 동창회, 각종모임, 계
예약 환영
923-3060
920 Yonge St.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잡지 10% 특별수당 확보
—협회원에 최대의 회소식—

잡지를 취급하는 우리 실업인협회원에게 최대의 회소식이 있다.

종래의 20% 이윤으로 거래해 오던 잡지류에 대하여 약 10%의 추가이윤을 협회원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길이 확실시되고 있어 협회집행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10%는 진열수당(R.D.A.-Retail Display Allowrance)이라 하며, 잡지를 위시한 모든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출판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지불하는 특별수당이다.

상점에서 취급하는 물품중 가장 이윤폭(profit margin)이 적으면서, 가장 많은 노동과 시간의 소비를 요구하던 잡지 취급에 있어,그간 협회 집행부는 보다 나은 이윤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채널을 통하여 발행업자및 도매업자들과 협상을 전개하여 왔으나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중 「도미니온」이나 「로블로」(Loblaw)등의 대형 수퍼마켓은 물론 United Cigar Store와 같은 소형 체인스토아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R.D.A.수당 10%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팔방으로 조사를 거듭한 결과, 협회와의 계약하에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리점(agent)을 발견함으로써 그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차선경 협회회장은 "우리 한인들이 코너스토아업에 종사한지가 벌써 15년에 가까운데, 왜 여태껏 이와 같은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는지 안타깝다. 잡지에 대하여 10%의 특별수당을 우리 협회원들이 받을 수만 있다면 적게는 매월 상점당 100달러, 큰 상점의 경우에는 300~400달러의 순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각 가게별로 매 3개월마다 정기간행물의 실제매상을 종류별로 작성하여 보고해야 하는데, 협회는 각회원의 번잡을 덜기위해 Wholesaler(Metro News, Intercity News)와 접촉, 콤퓨터로 나오는 가게별 실제매상보고서 매입을 추진중이고, 일부 회사와는 이미 합의를 보았다.

Agent와 출판업자의 계약체결 관계로 내년 1월부터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이 R.D.A.가 이루어지면 Agent의 수수료(1.5%)와 Wholesaler의 보고서 fee를 제하고도 최소한 잡지 cover price의 7-8%는 회원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현재 취급하고 있는 잡지 종류의 90% 이상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R.D.A.의 실현은 실질적으로 회원 각자에 돌아가는 이익중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로서 회원과 비회원간의 차이가 커짐으로써 협회 가입회원수도 격증할 것이 예상된다.

밀크가격 인상으로 리베이트 재조정

10월18일부로 밀크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리베이트 계산을 위한 Period별 매상고의 구분에 있어서도 8%씩 인상 조정하게 되었읍니다.

(82.3.5.의 협회와 계약조건에 의함)

회원 여러분의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예):
과거 $5,000 이상 28.5%
현재 $5,400 이상 28.5%

김이열부회장 사의
두가게 경영, 시간고충 커

◆김이열 부회장

지난 1년간 본협회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해온 김이열 부회장은 건강상의 이유와 가정사정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오래전부터 두개의 상점을 자신이 직접 경영해야 하는 시간적 고충으로 인하여 사의를 표명하여 왔었다.

그간 협회의 차회장, 조기연 부회장및 집행부 전원은 남은 임기 1년을 함께 마치도록 설득에 최선을 다했으나 김부회장 자신이 더 이상 협회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므로 사의를 표하였다.

실버웃 요구르트 스페시얼, 55¢

Resen Dairy는 175그램 크기 요구르트에 대한 스페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 알려왔으므로 많은 회원의 이용을 바란다고 한다.

상품 — 175 gram Yogurt
가격 — 55센트(Reg. 64센트)
이윤 — Reg.와 동일한 리베이트
기간 — 11월2일-11월13일

<알립니다>

◆지난주 「실협뉴스」에 알린 바와 같이 협회는 캐나다한인태권도협회가 11월20일에 개최하는 선수권대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포스터와 함께 입장권을 회원 여러분에게 우송하였으니 최대한의 협조를 재삼 부탁한다고 한다.

◆Kingston Rd.에서 King's Variety를 경영하는 회원 김봉근씨는 11월1일 저녁 8시경 40여세의 중년여인이 가져온 50달러짜리 미화지폐가 위조지폐임이 판명되었고, 역시 Kingston Rd.에서 Milk Town을 경영하는 제씨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50달러짜리 미화 지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

실협팀 배구대회 출전
희망회원 연락 부탁

배구협회 주최로 11월20일 West Humber학교에서 개최되는 배구대회에 "실협"팀을 구성 출전키로 결정하였다.

협회는 과거 선수생활을 했거나 또는 대회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협회사무실로 연락해 주기 바라고 있다.

한편 지난 3월27일 같은 장소에서 실시된 대회에서는 "실협"팀이 처녀출전하여 선전,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성장하는 우리실협
성공하는 나의사업

ITEN 성인잡지에 대해

Intercity News 회사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잡지 공급을 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1)성인잡지는 5피트 이상 높이에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Blinder로 가려 놓으십시오. 「Penthouse」와 「Playboy」같이 나체 아닌 표지의 잡지는 Cash Register에서 3피트 이내의 장소에 진열하여 직접 통제를 하도록 하십시오.

(2)어떤 잡지를 앞줄에 놓아야 하는지 상식으로 판단하십시오. 나체 아닌 표지의 잡지는 앞줄에, 그리고 나체표지는 다른 잡지의 뒤나 Blinder로 가리십시오. Blinder는 회사에서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

(3)거래 잡지회사를 제한하십시오. 사법당국이 신임하는 자문위원회의 검열을 정기적으로 받는 회사는 Intercity와 Metro News의 두 회사 뿐입니다. 40%의 이익을 주는 포장잡지에 속지 마십시오. 이들은 오래된 위험한 잡지들입니다. 경찰의 고발조처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업자들입니다.

(4)남은 잡지나 묵은 잡지를 바닥에 놓지 마십시오. 안보이게 치워주십시오.

이상을 지키시면 일반의 항의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Customer Service Bureau(252-6351)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Intercity News회사의 광고임)

—캐나다식품소매업자연합회장—
"개인그로서리 전망 밝다"

★본 기사는 11월2일자 <토론토스타>지에 게재된 것을 번역, 전재한 것임.

지난 11월1일 Constellation 호텔에서 개최된 캐나다식품소매업자연합회(Canadian Federation of Retail Grocers)의 신임회장 Tony Wilshaw씨는 개인 식품상점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개인식품가게는 큰 「체인」의 타격과는 달리 불경기를 잘 타개해 나가고 있다. 누구나 하루 세끼는 먹어야 하기 때문에 별로 불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식대를 줄이기 위해 구매성향을 바꾸는 사람들 때문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체만큼 심하지는 않다.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있어서도 개인가게가 「체인스토아」보다는 훨씬 잘 견디어 내고 있다고 본다.

개인 그로서리가게가 「체인」에 비해 고객의 기호를 그때 그때 능률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손님의 대개가 이웃에 살고 있고, 「체인」처럼 건의서를 작성해서 본사에 보내야 하는 거추장스러운 절차없이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가게는 목숨이 가게에 달려있고, 전 가족이 매달려 있으며, 동네의 일에 민감하고, 24시간 자기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개인가게의 장래는 유망하다고 본다.

2~3년전까지만 해도 개인가게가 「체인」에 뒤지고 있었으나, 예를 들어서 「쿠벡」에서는 소규모 식품상들이 Steinberg's만 제하고는 거의 다 밀어냈고, 전국 기타지역에서도 차츰 그 시장을 점령해 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Canadian Grocer」 잡지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1979년 이래 전체 식품매상고중 개인가게의 비율이 서서히 상승하여, 작년에는 39.6%에서 40.7%로 늘었고, 금년에는 40.9%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같은 성공의 비결은 지난 수년전부터 개인가게들이 IGA나 Red & White같은 자발적인 구매단체로 결속하는 경향이 생겼고, 이러한 단체의 대량구매력과 더불어 개인가게들이 큰 「체인」과 같이 염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의 전문적인 「프로모션」계획을 이용할 수 있게 된데에 있다.

강력한 자발적 구매단체와 개인가게의 융통성이 결합, 작용하여 앞으로 10년 이내에 식품산업(grocery industry)의 면모가 바뀌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상담실 역)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가장싼 가격으로 김치를 팝니다
주문김치환영
서부지점 ☎: 243-9544
해밀톤지점 ☎: 1-385-1485

훼밀리·닥터(의사 왕운린)
(B) 968-1543
(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김명숙 회계사무소
이전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의 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아오니 회원 여러분의 세무및 회계업무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627 Bloor St. W. Suite 302(실협 윗층)
□전화 : 534-3760(B) 669-2710(R)
□경력및 학력
74년 이화여대 경영학과 졸업
Algoma University 회계학 전공
5년간 C.A.Firm 근무
현 C.G.A. 5th Level(Finialist)

Welcome to K.B.A.

금주의 신입회원

지난 10년간 교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협조 아래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온 본 협회는 명실 공히 교포사회의 범실협인단체로서 성장키 위해 직종별 분과위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종사하시는 교포실업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G & B Fruit Centre	김회삼	O.K. Auto Body	김희삼
가나안 카펜	유원덕	McNair's Variety & Gift	강대영
나이아가라 한국농원	박수용	Kwon & Tae Kim Ltd.	김관영
DR. 왕운린	왕운린	Barton Variety	강환주
보광한약방	김남집	Lakeshore Mini Mart	전병욱
Wayside Art Gallery	김길수	J.M. Discount	장홍원
24Hour 냉동·전기 Service Co.	이황영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실협 지정
The professional pest controllers.
pco
Call PCO, to solve your pest problems.
Call : 699-9373
1472 Kingston Road, Scarborough, Ontario M1N 1R6
P C O Services Ltd. Since 1952

한국일보
우리의建設은健全한新聞

實名制 4~5년 延期

民正 검토 修正案 週初에 國會제출

정부와 民正黨이 金融實名去來制에 관한 당초의 방침을 크게 바꾼데 이어 국회財務委는 30일 與野간사회의를 열어 實名制를 비롯한 金融관계法안을 심사할 11人小委구성문제를 논의했으나 民韓黨이 不應하여 합의보지 못했다. 民正黨은 黨政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시기등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담은 實名制 修正案을 수週初 제출, 정식案과 竝行 심의한뒤 오는 11월8일까지 財務委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있어 앞으로 실시시기와 補完등에 있어 野黨측과 적지않은 논란을 벌일것으로 예상된다.

實施시기는 國會同意언도록

이날 民韓黨 재무위원들은 『實名制에 관한 정부여당의 통일견해가 나오지않은 상황에서 심사에 참여하는것은 실시연기를 굽히고있는 여당의 뜻에 들러리를 서는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제, 民正黨의 修正案이 제출된뒤 小委구성에 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民正黨은 實名去來法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되 실시시기는 法案에 규정하지않고 정부가 與件이 성숙되어 실시하려고 할때에는 그시기에대해 국회의 同意를 얻도록 할방침이다.

사실상 無期연기나 留保와 다름없는 이러한 방침은 지난29일의 黨政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것으로 알려졌는데 李鍾贊총무는 30일 『법안에 시기를 明示하지않고 예정대로 통과시키되 실시시기는 행정부의 自律에 맡기지 않고 국회가 결정권을 쥐도록하는 내용이 修正案에 포함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實名制의 실시시기를 84년이나 85년 또는 86년으로 못박는것은 무의미하기때문에 경제의 안정적기틀이 마련된후인 4~5년후에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하고 『그렇다고 施行令에 일임할경우 정부가 금방실시할 가능성도없지않기때문에 시기결정권을 계속 국회의 영향력하에 두도록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총무는 『實名制실시에필요한 경제적 與件이나 電算化시설이 아직안되어있어 시기를 못박을 수 없다』고 연기의 불가피성을강조하고 『그러나 法案은 예정대로 내달8일까지 재무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土地대장電算化는 83년말, 주민등록 전산화는 85년에가야가능하며 현재 國稅廳의 전산능력도50만명에 불과하다고 與件不備를 지적하면서 實名制는 실시기틀이 잡히는시기에가서 시행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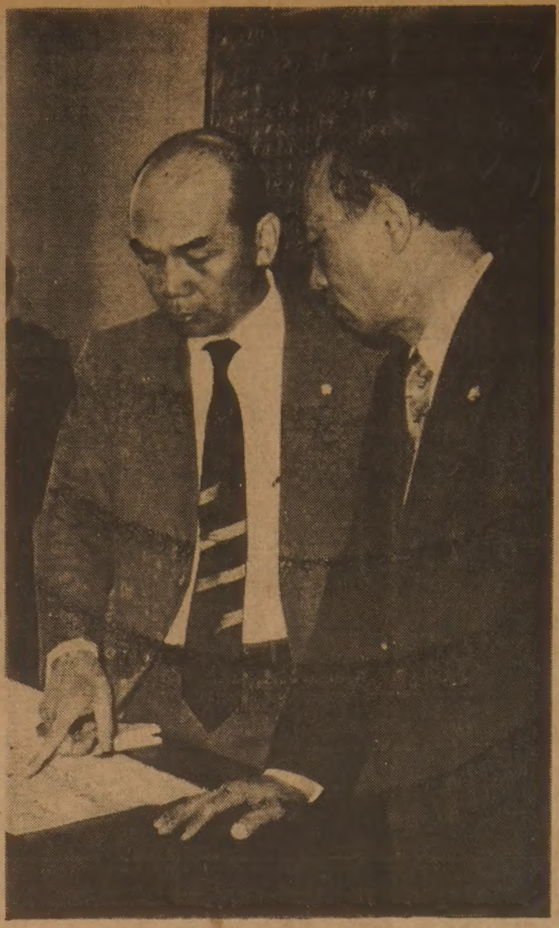
陳懿鍾정책위의장도 경제상황이 내년에도 불투명하고 3백50억달러의 外債를 안고있는 경제사정을 고려하더라도 實名制를 후퇴시키지 않을수없다고 설명했다.

李총무는 일단 立法조치는 해놓고 내년부터 假名制이용자에게는 벌칙을 적용하려던 정부방침과는 달리 假名制이용자는 그대로 두고 實名制이용자에게 보너스를 주는등 법시행을 유도할수있는 행정조치를 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容泰대변인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시기를 못박지않는다고 심의를 거부하지나 할경우 法案이 계류상태에 머물수도있을것』이라고 示唆했다.

한편 民韓黨은 내년1월1일부터 實名制를실시하되 저축성예금에 대해서는 만기도래일까지 假名을허용하고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83년6월30일까지 實名化해야한다는 黨의 기존방침을 계속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民韓黨은 民正黨이 국회에 제출한 金融實名去來法을 수정, 실시시기를 연기할경우 독자적으로 내년1월1일부터 實名制를 실시하는것을 골자로한 의원입법의 추진도 고려중인것으로 알려졌다.



◇11人小委구성 진통 實名制의 진통이 계속되는가운데 30일하오 국회財務委에서 民韓黨의 林鍾基총무(右)가 朴泰俊재무위원장을 찾아가 위원회의 운영문제를 협의하고있다.

금융단自體 實名化 검토

83년부터… 差等과세는 예정대로 施行

정부는 金融去來實名制가 보완연기되더라도 實名예금과 假名예금에대한 차등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키로하고 금융단협정을 통해 실명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면밀히검토하고있다. 이와아울러 실명제실시를 전제로 국회에제출한 각종세법도 손질할방침이다. 재무부는 30일 실명제를 무기연기할경우 국민복지연금제도처럼 유야무야 하게될 가능성이있다고보고 실명제 시행을위한 기반을 다지기위해 실명과가명을구별하여 차등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무부는 지금까지의 실명제추진방식이 지나치게 급격히시행키로한데서 많은 부작용이일고있다고 분석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차등과세제는 꼭실현할방침이다.

재무부는 또 실명제가연기될경우에대비, 금융단협정을 고쳐 83년부터 신규예금은실명으로만 받도록 하는방안도 검토하고있다. 재무부는 美國을 비롯하여 실명제를실시하고있는 나라가 대부분법적뒷받침아래 시행하는것이 아니라 금융관행에따라 은행에서 예금을받을때 실명을사용하지않으면 예금취급을 거절하고있는데 착안, 법적뒷받침없이 금융단협정만으로 실명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재무부는 또실명제의 실시를 전제로 국회에제출되어있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등을 재검토, 대폭인하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의 세율을 다시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상속세·증여세 세율은 실명화에따라 상속재산이 전액노출될것으로 보고 세율을 낮추었으나 시행이 연기되면 다시 현행세율로 환원될수밖에 없는것으로보고있다.

外資導入法 내년改正

財務委 "電子교환기 完製品 수입이유는"

국회 재무위는 30일상오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제출한 12억5백만달러에 달하는 83년도公共借款도입동의안에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鄭宗澤 柳璦賢 金鍾基(이상民正) 朴完奎 金文元(이상民韓) 趙炳鳳(국민) 林采洪의원(議政)등은 차관先등 차관대책을 다시세우고 차관사업을 종합평가한후 5차5개년계획을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고 따지고 『外資에의한 성장구조를 內資동원의 경제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농어촌 전화교환기 시설확충사업에 있어 전자교환기 완제품을 수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물은후 『차관동의안에 차관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姜慶植재무장관은 답변에서 『현행 外資도입법이 미비한점이많아 내년봄 외자도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한후 『82년8월말 현재의 外債殘額 3백32억달러중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유러달러등의 外債는 2백20억달러로서 국제금리가 1% 변동함에따라 연2억2천만달러의 이자부담영향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에 경제기획원안에 투자신탁을 전담할기구를 신설, 차관사업계획을합리적으로 추진할생각』이라고 말했다.

美 政務담당次官 來7일 한국방문

美국무성의 로렌스·이글버그 政務담당차관이 아시아순방길에 오는 11월7일부터 9일까지 우리나라를 비공식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글버그차관은 지난 57년 국무성에 들어가 駐유고대사 歐洲담당차관보등을 거친 歐洲通직업외교관이다.

蘇 백파이어爆擊機 東海에서 作戰개시

極東항로등 새威脅

【호놀룰루AP=聯合】 소련의 백파이어전략폭격기들이 이미 동해에서 작전을 개시, 극동 및 태평양 지역 항로에 새로운 차원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미태평양군사령관 로버트·롱제독이 28일 밝혔다.

롱제독은 이날 호놀룰루미해군협회연설에서 그같이 밝히고 캄차카와 베트남의 캄란만에 기지를 둔 소련전투기들이 이제 재급유를 받지않고 미드웨이와 괌및 필리핀지역까지 공격하고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롱제독은 또 소련의 SS20 중거리미사일부대의 약 3분의1이 극동지역에 배치되어있다고말하고 일본을 사정권안에 둘수있는 이들 미사일이 2백50기이상의 핵탄두를장착하고있다고덧붙였다.

그는 이어 금년말안에 미태평양함대소속 잠수함들이 토머호크 크루즈미사일을 적재하게 될것이며 하와이와 한국주둔 미군들에게는 코브라헬리콥터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슐츠 美國務장관 내년초 中共방문

【워싱턴=李文熙특파원】 슐츠미국무장관이 내년초 중공을 방문하게될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紙가 29일보도했다.

이신문은 이어 슐츠의방문결과에 따라 레이건대통령의 訪中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豫決委, 追更案통과

국회豫決委는 30일새벽 전날밤에 이어 8차회의를열고 정부가 제출한 6천7백23억원규모의 82년도 追更案을표결끝에 재석49명중 可26, 否22표로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民韓·국민·議政同友會등 野圈은 녹색법인에대한 추징세금을 세입에추가, 3천5백억원의 국채발행을 취소하여 삭감할것을 주장했고 民正黨측은 이미 정부가 2천8백23억원의 세출을 삭감하는등 추가삭감의 여지가 없기때문에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심야논란을 벌였다.

金상공, 바그다드에 국제博覽會 참석차

金東輝상공부장관은 1일부터 이라크 바그다드서 열리는 바그다드국제박람회에 참석키위해 30일 낮 KAL편으로 출국했다.

金장관은 박람회개막식및 한국관개관식등에 참석한뒤

独立紀念館 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30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永安帽子商事 代表 白聖鶴씨外 任職員一同=6백2만6천3백31원 ▲韓國馬事會(特別競馬收益金)=3백50만원 【日刊스포츠접수】 ▲大韓體育會大韓올림픽委員會常勤副會長 金鍾烈씨外任員一同=1백1만원 【〃】

永安帽子商事 白聖鶴 대표 外 6백2만원

韓國馬事會 특별競馬 收益金 3백50만원

▲恩平區醫師會 회장 趙雲夏씨外회원一同=1백만원 ▲(株)오성임직원一同=1백만원 ▲海軍군납상공인 자진정화위원회 회장 이종복씨外 회원56명=57만원 ▲서울장안 라이온스클럽 (회장 장덕환) 회원一同=50만원 【鎭海지국접수】 ▲민족통일 수원시협의회=28만5천원 (회장 朴贊東씨=10만원, 부회장 李鍍衡씨=2만원, 洪德天씨=2만원, 간사장 朴在根씨=1만원, 감사 崔盛俊씨=1만원, 李鍾九씨=2만원, 운영위원 池甲成씨=1만원, 成準鎬씨=1만원, 金昌烈씨=1만원, 尹基澤씨=1만원, 朴正一씨=1만원, 李正씨=5천원, 韓正雄씨=1만원, 韓榮熙씨=5천원, 鄭完模씨=1만원, 車大圭씨=5천원, 洪思文씨=1만원, 李昌植씨=1만원) 【水原지사접수】 ▲鍾路放射線科醫院 (鍾路區종로2가84의6) 院長 宋文甲씨=20만원 ▲日本京都府舞鶴市 京都韓國人信用組合本國旅行團 33명=17만5천원 ▲進和纖維(株)=10만원 ▲산도스時計임직원一同=10만원 ▲麻浦區城山1洞16통1·2·3반 주민一同=6만원 ▲在사우디 리야드 삼익건설기능공 이재경씨 유종열씨=사우디貨1백리얄 ▲서울中區新堂5洞 주원인씨=4천5백원 【소년한국접수】

大韓올림픽委 金鍾烈부회장 外 1백1만원

恩平區醫師會 趙雲夏 회장 外 1백만원

(株)오성 임직원 일동 1백만원

◇金鍾烈씨

海軍 軍納 상공인會 57만원

장안 라이온스 클럽 50만원

民統 水原市 협의회 28만원

鍾路 放射線科 醫院 20만원

京都韓人本國여행단 17만원

進和纖維(株) 10만원

산도스 時計 임직원 10만원

社会漫評

좌우간 房을 하나 만들기로…

地平線

가을이 깊어 간다. 晩秋다. 紅葉, 黃葉으로 물든 산골짝엔 낙엽밟는 바스락 소리가 하염없이 바람결에 흩려온다. 『시몬느/그대는 좋아하지/저 낙엽밟는 소리를…』 구르몽의 詩가 소녀들의 가슴에 感傷을 심는 가을도 상달인 10월을 오늘로 넘기고 내일이면 11월에 접어든다. ▼며칠전에는 희귀조 재두루미가 47년만에 美湖川에 돌아왔다고 큰사진이 신문에 났다. 晩秋에 돌아오는 이귀한손님은 동북아시아의 특산으로 중국의 동북부 우수리江에서 번식하며 우리나라엔 늦가을에 찾아와 겨울을 난다. 이맘때면 찾아드는 기러기, 물오리 소식도 들린다. 이상기후탓인지 여느해보다 며칠 앞서 왔다고 한다. 우리농가월령가에도 『때 기러기 언제왔노/벽공에 우는소리/찬 이슬 재촉는다/滿山의 楓葉은 연지를 물들이고/울밑의 黃菊花는 秋光을 자랑하네…』라고 기러기의 청랑한 울음소리를 단풍·국화와함께 가을의 興趣로 엮고있다. ▼몸에 좀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긴하나 맑고 드높은 가을하늘은 收穫의기쁨, 푸짐한行事의 즐거움을 모든이에게 준다. 시골에선 풍년을맞아 묵직하게달린 벼이삭을 터느라고 추수에 바쁘고, 서울에선 농촌의 과실 풍년덕택으로 값이 헐해진 사과, 배, 감, 대추 먹기에 마음과 몸이 모두 느긋하다. 지난 초하루날인 추석날을 시작으로 개천절, 국군의날, 한글날, 박람회등 행사도 많았다. 그런가하면 文化의달답게 전국民俗경연대회, 갖가지 전시회, 세미나로 붐볐는가하면 체력을 겨루는 전국체전도 이달중에 있었다. ▼사라져가는 전통놀이를 재현하는 19해 民俗경연대회에서는 새로 개척가 종목중 14개가 새로 발굴돼 첫선을 보인것으로 매일 2~3만명이 도시락을 싸들고 구경할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南原의 三童굿놀이. 어린이가 태어나서 탈없이 커가는 모습을 소년3명이 어른 어깨위에 올라가 춤과 몸짓으로 표현해 갈채를 받았다. 대학생들의 페스티벌도 각학교마다 열려 공부에 시달린 학생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되살려 주는중이다. ▼상달을 맞아 결혼러시로 떠들썩한 일면이있는가하면 조상묘에 성묘하고 경건히 제사도 올렸다. 또 그런 정성을 이으며 어제는 전국 市·道·郡에서 反共희생자 合同慰靈祭가 거행됐다. 자유수호를 위해 反共戰線에서 싸우다 이름모르게 숨진 民間人 반공희생자 1백여만영령의 명복을 빌고 호국정신의 계승을 온국민이 다짐한것이다. 짧아가는 가을과 더불어 다가오는 겨울준비에 몸과 마음이 절로 바빠지는것 또한 막을 도리는 없겠다.

英최대 바클리銀行 베번會長 어제來韓

영국최대은행인 바클리은행 그룹의 티모시·베번회장(사진) 부부가 30일 내한했다.

베번회장은 3일동안 한국에 머무르면서 정부및 실업계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바클리그룹은 한국에 지사를 갖고있으며 韓國綜合金融주식 25%를 소유하고 있다.

4일 귀국할 예정이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거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店)
690-5217(R)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大韓航空만이 每週 23回 韓國으로 出発합니다.

뉴욕↔서울 直行便
週4回 運航

매주 화·목·금·일요일 JFK공항 출발

로스앤젤리스에서는 서울로 매일 출발하며,
週4回(月·水·金·土)는 NONSTOP便을
운항합니다.

정성껏 봉사하는 우리의 날개—
KAL 大韓航空

편명 출발일	KE011 月水金土	KE001 火木土日	KE015 火木日	KE050 月水金日	KE007 火木金日
뉴욕					23:55
로스앤젤리스	14:00	10:00	23:20		
앵커리지			▽		02:15 03:40
호노루루		12:20 13:20		02:20	
동경		16:10 17:20			
서울	19:00	19:30	06:40	06:50	06:30
도착일	火木土日	水金日月	木土火	火木土月	木土日火

편명 출발일	KE012 月水金土	KE002 月水金土	KE016 火木日	KE060 火木土日	KE008 火木金日
서울	16:00	18:00	21:30	20:30	18:40
동경		20:00 21:30			
호노루루		09:40 12:10		09:50	
앵커리지					08:10 10:40
로스앤젤리스	11:00	20:20	16:30		
뉴욕					22:20
도착일	月水金土	月水金土	火木日	火木土日	火木金日

▽앵커리지 급유 경유
*모든 시간은 현지 시간임. *본 시간표는 정부인가 조건이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읍니다.

★ 자세한 것은 대한항공이나 각 여행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 (416) 862-8250
390 BAY ST. SUITE 720,
TORONTO, M5H2Y2

●서울여행사 535-6004
●신세계여행사 536-2155
●제일여행사 535-2377
●한국여행사 531-4607

브레즈네프 對美비난속셈

蘇의「公開的 軍備증강」信號

中·蘇관계 和解기미로 더욱關心
와인버거 "뒤떨어진건 美國이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레이건 행정부가 전례없는 군비증강을 해왔다고 비난한 소련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의 말은 미국내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물론 소련은 늘 미국의 군비개발에 대해 비난을해오고 있었지만 그야말로「전례없는」강경한 표현을 담은 브레즈네프의 말은 비난 그 자체보다 군비증강문제에 있어 소련의새로운 행동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中蘇관계화해의 기미속에서 그 관심의 度를 더욱 크게 하고있다.

美행정부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브레즈네프의 말을 몇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있다.

첫째는 소련이 공개적으로 군비증강을 하겠다는신호로 볼수있다는 견해이다.

인사이드

미국이 소련에대해 그랬던것처럼 소련은 늘 미국이 군비증강에서 소련을앞지르고 있다고 주장해왔고 그것은 對蘇강경정책을 외교정책의 중요 근간으로삼고있는 레이건행정부가 들어선후 더욱 심해졌던것으로 돼있다. 하다못해 브레즈네프의 이번표현이 거친것까지 레이건이 늘소련을 비난해왔던데 기인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소련은 그들이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분야에 있어서까지 미국을 앞지르고있다는 레이건 행정부의 말을 늘 부인해왔다. 도리어 미국의 B1폭격기, 트라이던트 잠수함 미사일, MX지상 미사일에 관심을 쏟는가하면 미국의 고정밀기술의 상징인 컴퓨터의 군사적 이용에 커다란 관심을 쏟아왔던것도 사실이다.

브레즈네프의 말에 앞서 지난3월 소련군 총참모장 니콜라이·오가르코프도 미국이 원폭, 수폭, 다탄두미사일, 공중경보기, 레이저광선, 우주왕복선등에서 모두 기선을 잡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브레즈네프의 연설 다음날 특별기자회견을 가진 와인버거 국방장관의 말을 빌면「뒤져있는것은 미국쪽이다. 무기수준뿐 아니라 기술에 있어서까지 뒤지고 있으며 소련은 현시점에서의 핵전쟁에서 미국을 이길수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와인버거 장관은 특히 레이건행정부가 1조6천억달러가 소요되는 군비증강 5개년계획을 세운데 대해 브레즈네프가 한치의 주춤함이 없는것은 그의 도전이 어떤것인가를 잘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사실 그간 레이건행정부의 강경파에의해 강조돼온 소련 군비상황의 우월은 미국 국민들에게 어렴풋이나마 인식돼왔다. 브레즈네프의 연설이있은직후 뉴욕타임즈지와 회견한 소련전문가 윌리엄·하일랜드씨도 선뜻 브레즈네프의말이 군비증액의 신호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증액의 수준은현 소련군부가 요구하고있는 수준에까지는 미치지 못할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하일랜드씨는 그것은 소련의 경제력문제가 그하나이며 브레즈네프는 소련이 아직 데탕트를추구하고 있다는것을 내세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지금 나타나고있는 여러가지조짐으로보아 브레즈네프의 말이 가장먼저 현실로나타날 부문은 오는 11월16일 발표예정인 소련의 신년도 예산중 군비증액분야일 것이라고 행정부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이같이 브레즈네프의 말을 군비증액의 신호로 보면서도 이것은 소련이 미국과 군비대결을 해보겠다는 공개적인 최후의 신호로 보는 것은 섣부른 것이라고 일부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것은 브레즈네프의 연령이나 건강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런 對美강경발언이 나온것은 그의 후계자를 향한 신중히 계산된 행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지금의 싯점이 레이건 행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중간 선거를 앞둔 싯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소 대결이란 의미에서 소련은 레이건행정부라는 근래없던 상대를 만난셈이며 바로 레이건행정부의 군비증액 對蘇강경책이 소련을 오히려 자극한다고 민주당등 레이건 반대자들이 비난해 왔기때문이다.

유럽과 미국내 일각에서 일어났던 핵무기동결움직임은 좀더 구체화되어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저지등 4개주와 워싱턴 DC를 포함한 30개 시·군은 핵무기동결결의안을 오는 11월2일의 중간선거에서 투표에 붙이기로 돼있다.

브레즈네프 말의 저의가 어디 있든, 어떤의미로 해석되든 분명히 나타날 일은 소련의 군비증액이다.

이런 상황에서 레이건행정부의 정책방향이 對蘇견제를 위해 미국힘의 배양이란데서 변함이없다면 이것은 새로운 군비경쟁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선거전에 들끓고 있는 요즘 미국에서 브레즈네프의 말과 이에따른 와인버거국방의 회견이 비상한 관심이 되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社說

有名메이커 有害食品
—국민의 生命·保健위해 더 規制해야

일부 有名메이커의 食品마저 不良·有害라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保社部는 금년들어 지난 9월말까지 7백여개 食品품목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그중 5.3%에 해당하는 37개품목이 부적합 식품인것으로 밝혀져 2개품목을 허가취소했고, 22개품목에는 제조정지처분을 내렸다 한다. 바로그가운데 C식품 L축산 S우유조합같은 몇몇유명메이커의 牛乳·베이컨·소시지등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에따라 국민의 食生活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食品衛生에대한 일반의 관심은 근래 매우 높아져가고 있다. 그런데도 不正·有害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들이 줄지않고있다니 국민건강을 위하여 抜本塞源策이 서둘러 강구돼야 하겠다.

작년과 올해에 적발된 不正및 不良식품만하더라도 가짜보리차·有害양주·水銀콩나물·石灰두부를 비롯하여 毒性이든 軟肉素·廢油참기름·有害色素를 쓴 단무지·롤밥고추가루·불량한 엿류·대장균牛乳·유해생선통등 허다하다. 그밖에 人體에 해로운 甘味料·着色劑·漂白劑가든 食品들도 한목끼어 이루 헤아릴수조차 없다.

이같은 유독성 부정식품을 사람이 계속 먹으면 불구자가 되거나 목숨을 잃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것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들의 소행은「漸進的 살인행위」나 다름바 없다하여 과언이 아니다.

특히 商慾에만 사로잡혀 제조원가를 적게들여 暴利를취하기 위해 상한 생선따위, 변질 原料나 抗生物質 防腐劑 기타 不純물질을 添加하여 고의로 부정유해식품을 만들어 파는 업자들은 철저히 색출, 엄단해야할 일이다.

현행食品衛生法과 그施行令엔 식품의 제조기준을 명시하고있다. 또 保健犯罪團束에관한 特別措置法은 유해식품제조업자들을 嚴罰하기로 규정해 놓았다. 이러한 처벌법규가 있는데도 有害·不正식품이 여전히 범람하고있음은 그간 관계당국의 단속과 責任意識 使命感에 소홀함이 있지않았나 하는 생각이든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주무·감독당국은 不良食品일소에 가일층 분발있기를 촉구한다. 그를위해 이미 食品業所의 認許可는 받았으되 제조설비가 비위생적이거나 허술하며 法이정한바 유자격전문가를 고용치않고있는 업소는 즉각 그未備點을 補完케해야 할것이다.

아울러 水準높은 근대식 食品檢査기구를 신설하여 이로하여금 식품제조업소는 물론, 일반국민에게도 … 사용법을 계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식품에는 상표와 메이커명을 반드시 부착케해야 할것이다.

요컨대 有害·不良식품을추방하려면 犯法者를 엄단하는 한편 제조·가공·유통過程에서 事前지도와 事後감독에 더욱 注力해야 한다는 것이다.

食品에 관한 限, 그 消費者는 온 國民이다. 그러기에 有害식품의 유통을 방치하면 그 被害는 곧 국민에게로 擴散될 것이 틀림없다. 事理가 이렇지대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무관심이나 無知는 止揚돼야 한다. 소비자 모두가 告發정신을 발휘하는 등,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監視者로서의 機能과 役割을 다해야 할 것이다.

뭐니뭐니해도 不正식품이란 痼疾을 뽑아버리는데는 良心의 復活이 가장 긴요하다 하겠다. 아무리 돈벌이가 좋다해도 사람의건강을 해치는 手法으로 致富하려 한대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이경우 群小업자라고해서 例外일수는 없겠지만 특히 이번에 恥部를 드러낸 일부有名메이커들의 反省을 촉구해마지않는다. 다른 한편 화학비료나 農藥을 過用하여 생산한 공해식품을 자신은 먹지않으면서 市場에 내놓는 못된根性이나 下水또는 工場廢水가 스며드는 물로씻은 채소류를 거리낌없이 소비자에게 팔아넘기는 惡習도 버려야만 하겠다.

中進國에서 先進國으로 도약하려는 이마당에 서로의 保健을 지킬줄아는 文化民族으로 하루속히 더큰 전진을 기해야 할일이다.

스페인에 社會黨政權
—民主體制 維持여부 금후의 關心處

스페인에서 또 하나 社會黨政權이 등장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네번째의 社會黨執權이라 할수있다.

28일에 실시된 스페인總選에서 펠리페·곤살레스가 이끄는 社會勞動黨은 총의석 3백50席중 과반수를훨씬 넘는 1백98석을 확보함으로써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社會勞動黨의 승리는 프랑코집권후 43년간을 지속해온 스페인 極右保守勢力의 권력독점에 일단 막을 내리게 하였다. 1936년 프랑코에의해 人民戰線이 분쇄된후 스페인에서 左派政治勢力은 완전히 붕괴되거나 地下로 스며들고 말았다。社會勞動黨도 프랑코總統이 사망한 1년뒤인 1976년에 비로소 부활됐었다.

프랑코의 殘影은 그간에도 軍部와 財界에서 거세힘을 발휘해왔다。때문에 스와레스前首相도「中道」라는 적지노선으로 그영향력을 축화시켜나가지 않을수 없었다。그러고보면 6년만에 社會勞動黨이 右派보수성향을 누르고 執權하는데까지 이르렀다는것은 어느모로나 층격적이고 격이적인 일이라 할만하다.

左派社會黨이 스페인에서 급격히 진출케된 배경은 여러가지인듯 하다. 단순히 서부유럽을「풍미」한다는 社會主義사조에 스페인유권자도 휘말린 때문인것만은 아닌듯하다.

스페인에서는 프랑코死亡후 그래도 舊體制탈피와 새民主政治의 구현이「民主中道聯合」세력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신뢰가 그간잘려있었다.

그러나 근래 이 中道聯合政府는 2백만명의 실업자를 내고 인플레 앙진률을 15%에 이르게 하였으며 경제성장률도 1.5%를 저회하도록 만들었다.

계다가 中道聯合은 聯合이 와해돼서 극우파의「人民同盟」과 좌파인「社民黨」으로 分化되어 버렸다。결국 스페인 有權者에게 주어진 選擇의 폭은 단일세력인 社會勞動黨과 분열된 中道聯合의 잡다한 세력으로 제한될수 밖에 없었다.

總選결과는 이런 有權者의 단순한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左派인 社會勞動黨이나 右派의 대표세력격인 人民同盟의 兩者擇一로 나타난 것이다.

左右兩極化경향을 보이면서도 좌파인 社會勞動黨에 다수표가 쏠린것은 黨首 곤살레스가 선거중 政綱의 색채를「非左派的」으로 수정한때문이 아닌가 분석되고 있다. 그가 右派保守的性向이 남아 있는 스페인 국민에게 社會保障政策이나 산업·금융의 국유화를 포기하고(電氣산업만 국유화) 社會主義化보다 국가발전, 民主化계획에 더 치중하겠다고 公約한것이 상당히 작용한듯하다.

곤살레스는「가시없는 장미」를 그의 黨의 상징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政綱중「가시」를 떼고 선거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언제까지 이「가시」를 그대로 떼고 있을는지, 이點 스페인 국민들은 아직도 不安한상태다.

특히 軍部와 經濟界가 그들보는 눈은 차갑다한다. 곤살레스는 스페인이 나토에 가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민투표로 탈퇴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동시에 스페인내의 美軍기지폐쇄문제와 지브롤터기지 회수문제를 美·英과 각각 교섭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는 외교정책에서도 西方지향보다는 第3世界중점으로 전환할 뜻을 비쳤다. 또 군부내의 右派的체질을 개선하고 군사학교개편을 단행하며 국방·안보의 比重을 다른 정책보다 낮추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곤살레스의 政策方向에는 스페인의 우파보수세력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이 軍部의 어떤 행동으로까지 변한다면 이는 스페인이 쥐를 잡기 위해 독을 깨는 꼴로 될 것이다.

어떤 계기로 집권했건, 곤살레스의 社會黨政權은 스페인에서 半世紀만에 살아난 民主政權이라고 評價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스페인에서 기대해야 할 일은 곤살레스의「온건노선」견지와 右派보수세력의 民主主義體制에 대한 승복일 것이다. 스페인은 지금民主主義의 成敗를 가름하는 기로에서있다고 우리는생각한다.

美,「제3核彈」개발 계획
NYT보도 부작용줄여 목표選別명중

【뉴욕서=聯】미핵전문가들은 목표물을 좁혀 선별적으로 명중시키고 폭탄투하후 부작용이 적은 새로운 유형의 핵무기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즈지가 29일 보도했다.

타임즈지는 미국방성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새로 개발될 핵무기가 원자탄·수소탄에 이은 제3의 신무기가 될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문가들은 새무기가 주로 미국의 전략적목표물과 미국시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구되고있는 제3의 신무기중엔 중성자탄도 물론 포함되는데 새 핵무기계획이 확정되어 생산이 개시될때까지는 최소한 10년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뉴욕 타임즈지는 말했다.

◇東·西獨갈림길 돌아보는 대처首相 마거리트·대처英國수상㊥이 29일 헬무트·콜西獨수상㊧및 리히아르트·폰·바이츠·새커西베를린市長㊨과 함께 베를린장벽너머 東베를린을 바라보고 있다。왼쪽의 낙서된 벽이 베를린장벽이고 그너머 뒤쪽배경이 東베를린이다。【베를린29日 AP電送=聯合】

中共 女歌手도 臺灣으로 亡命

【臺北UPI·AP=聯合】중공당국의 요구로 반공인사친척들을 회유하기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중공의 저명한 오페라가수가 대만으로 망명해왔다고 대만의 聯合報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공메이 오페라학교조교수이며 오페라가수인 창·치·혁여인(本名 추·리엔·후아·49)이 각각 14세 11세된 아들과 딸을 데리고 28일 臺北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한국인등 지문채취拒否에
日, 海外여행 規制
北九州거주 崔昌華목사 재입국不許

【東京=聯】일본거주외국인(대부분 한국인)의 지문채취 거부운동이 확대되고있는 가운데 일본법무성은 지문날인거부자들의해외여행을규제하기시작한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재일교포로 지문채취 거부운동을 벌여온 기따규슈시 거주 崔昌華목사의 재입국신청이 지난 29일 불허됨으로써 확인됐다.

崔목사는 오는 11월1일, 4일 서울에서 열리는 韓·日기독교협의회에서 강연하기위해 일본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장 도꾸나가·고로 목사등과 함께 재입국을 신청했으나 지문채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허당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법무성당국자는 崔씨가 지문채취를 거부함으로써 일본의 관계법률을 위반한 상태인만큼 재입국을 불허할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이같은 방침은 崔목사뿐만 아니라 현재 지문날인을 거부하고있는 29명의 재일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지문채취 거부자가 고발되어 재판을 받을경우 징역형을 받을수있다』고 말하면서『이번상황의 사람에게 해외여행을 허가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레이건政府와 關係개선 포기
蘇政治局員 체르넨코示唆

【모스크바29日=聯】소련의 유력한 정치국원인 콘스탄틴·체르넨코는 29일 이례적으로 강경한 어조로 美정부를 비난하면서 크렘린당국이 레이건행정부와의 관계개선 희망을 포기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레오니드·브레즈네프최고회의간부회의장겸 공산당서기장의 측근인 체르넨코는 그루지아수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 정치집회에서의 연설을통해『美지배계급은 긴장해소와 평화적협력이란 시련에 실패했다』고 전제하고 美정부가『협박적인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소련역시『거기에 강경히 맞서 기다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힝클리의 괴벽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눈 레이건 美대통령암살기도범 존·W·힝클리의 모습。이사진은 AP통신이 29일 워싱턴의 한법원문서에서 입수했다。【워싱턴29日 AP電送=聯合】

2百55억모금 獨立紀念館성금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는 29일까지 2백55억2천4백52만9천7백11원이 모금되었다고 발표했다.

골초, 腦老化빠르다
★뇌혈류감소경향뚜렷

海外토픽

담배가 인체에 각종 건강상의 해를 끼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으나 담배를 장기간 계속해 피우는 이른바「골초」들이 비흡연자에 비해 뇌의 노화현상이 더욱 촉진된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일본 도호쿠(東北)大抗酸菌병연구소 연구진들에 의해 30일 밝혀졌다.

이들 연구진들은 현재 일본 교오또(京都)에서 열리고있는「노년의학총회」에서 이날 발표한 연구조사결과를 통해 하루 20개비이상 10년이상 또는 하루 40개비 이상 5년이상을 계속 흡연하고있는 37명을 골초로, 하루에 몇개비밖에 피우지않는 74명을 非흡연群으로 각각 나눠 뇌의 老化현상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뇌血流를 측정, 비교해 본 결과 뇌혈류는 非흡연군이 뇌(音) 1백g당 75㎖인데 비해 골초들은 65㎖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들 연구진은 특히 이같은『골초』群의 뇌혈류감소경향은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거의비슷한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마쓰사와교수는 특히 뇌혈류는 인간의 지능과도 밀접한관련이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기때문에 앞으로 흡연과 지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할방침이라고 덧붙였다.【東京=聯】

人事異動

國防部 ▲국군홍보관리소장 沈敏植

文敎部 ▲全南大군사교육관 金仁植(11月1日字)

大韓石炭公社 ▲理事 宋在衡 ▲기술연구소장 [illegible](30日字)

東亞日報 ▲編輯局政治部長 洪仁根 ▲〃編輯委員 南仲九 ▲〃第二社會部長서리 金一洙 ▲〃審議委員 金元達

政局往來

"財務部는 애써 고생했다치고 與黨은 무슨 사연으로 이래야 되나"

◆實名制留保발언 黨에서 지시했다

民正黨의 李鍾贊총무는 30일 實名制실시 시기에대해『86년에 실시한다면 이번 국회가 立法하는 것이 모순이고 84년에 한다면 83년과 불과 1년차이 박에 안나고, 85년실시도 무의미하다』면서 법안에 시기를못박을수없다고 강조.

그는 기자들과午餐을 나누는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실시시기에 대한 決定權을 국회가 쥐는문제는 法體制상의 문제도 있기때문에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李총무는 또『지난 몇달동안 黨간부들이 金埈成부총리 姜慶植재무장관 金在益 靑瓦臺 경제 수석비서관을 몇차례나 개별접촉하면서『再考』를 요청했으나 強行을 고집하여『책임문제때문에 주춤한는것 아니냐』고 우격다짐을 하기도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

그는 정부측에서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아 결국 財務委에서 공개적으로 공격할수 밖에 없었다면서 崔明憲·朴鍾寬의원의 實名制 유보발언이『黨이 시켜서 한것』이라고 告白.

李총무는『은행예금이 빠져나가 증권시장으로 가지못하는 자금이갈길은 결국 투기나 해외도피밖에 없다』고 부작용을 설명하면서『政權的 次元에서 이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실토.

◆小委不發〃修正案내뒤두고보자〃

3일간의 열띤 攻防이 끝난후 30일 實名制를 심사할 小委구성에 착수할 예정이었던 국회財務委는 民韓黨이『民正黨이 수정안을 낸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小委구성에 응할수 없다』고 반발하며 小委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아 처음부터 難航。

이날 재무위는 상오10시에 열정이었던 전체회의조차 늦추고 3黨간사회의를 열어 小委구성문제부터 논의했지만 民韓黨의 金台植간사가 黨論을 내세워 小委구성을 始終반대.

재무위는 公共차관도입동의안에 대한 질의가 끝난후 다시 간사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협의한 예정이었으나 金간사가 간사회의에 불참하고 국민당의 李聖秀간사도 회의가 끝나기도전에 지역구에 내려가 成員조차도 未達.

이날 民韓黨의 孫泰坤·金台植의원등은『미리 小委가 구성되면 民正黨이 제출할 수정안을 심사할 시간이 촉박해진다』고 전제한후『民正黨이 脫法으로 수정안을 내는데 우리가 구태여 서두를 필요가 어디있느냐』고 느긋한 표정을 짓기도.

이날상오 民韓측이 별도「작전회의」를 진행하는동안 民正黨의 鄭順德간사는 회의참석을 독촉하느라 民韓黨의원을 찾아다니며 애를태웠는데 기다리다못한 국민당측도 회의장밖을 들락날락하며 神經戰을벌이기도.

한편 林鍾基民韓黨총무와 李東鎭국민당총무는 각각 재무위에 올라와 自黨의원들에게 코치를 하면서 여당측태도를 탐색하기도.

◆충격주고도 뭐가모자라 變色하나

民韓黨측은 정부·여당간에 實名制가 며칠동안 원칙이 통일되지 않고 陣痛을 겪은데대해 중대한 경제정책이「變身」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

林鍾基총무는 30일『實名制의 졸속정책이 국민경제에 충격을 주고도 뭐가 모자라 카멜레온처럼 朝夕으로 빛깔이 변한느냐』고 꼬집고『정부가 확연한 정책을 세워야 국회도 제대로 판단을 내릴게 아니냐』며『한심하다』를 연발.

또 豫決委사령탑인 金鉉圭정책심의회의장은『재무부는 애써 만들어보겠다고 고생을 했다치고 도대체 여당은 무슨 사연으로 갈팡질팡하느냐』고 공격.

財務委의『首長』격인 高在淸의원은『民正黨측이 내주에 修正案을 낸다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不法이다』라며『내일을 기약못하는 경제정책』이라고 꼬집기도.

◆常任委는 예비심사기구란 말인가

公共借款도입계획 동의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 30일의 국회財務委에서는 野黨측이 借款先이 정해져있지않은 6개사업의 違法여부를 추궁하여 한차례 논란.

姜慶植재무장관이 借款내역을 설명하자 趙炳鳳(국민) 李洙鍾의원(議政) 등은『차관先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국회의 동의를바란다는것은 마치 民法에 있어 계약의 상대자가 없는상황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는것과 같은격』이라며『중요요건이 미비되어있다』고 지적.

이에 姜장관은『법적으로 차관선이 정해지지 않은것은 온당치 못한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한후『그러나 국회는 입법기관이므로 동의가 바로 법률적효과와 같을수 있으며 과거의 관례도 있다』고 양해를 당부했고 朴泰俊위원장도『小委에서 이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거들었다.

이에 朴完奎의원(民韓)은 小委에서 모든문제를 논의하자면 상임위는 예비심사기구란 말이냐』고반박했고 金在暎·李英儀의원(民韓)등도『국민은 조금만 잘못해도 처벌하면서 국무위원은 불법인줄알면서 양해를 구하느냐』고 加勢.

그러나 이문제는 결국 姜장관이『차관조건을보아 國益을위해 가장 유리한 계약을맺기위한 행정제도로 알고 양해해달라』고 저듭양해를구해 一段落됐다.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원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주택
1. 마캄 & 윈치 －4 Br.Rm. 방갈로. 잘 꾸며진 지하실, 싸우나. Fire Place 가격: 12만4천9백불
2. 세퍼드 & 빅토리아 팍. 4 Br.Rm. 2층베미. 교통좋고 학교 가까움. 처음 사시는 분에겐 최적. 가격: 10만5천불.
3. 에그링튼 & 빅토리아 팍. 3 Br.Rm. 콘도미니움. 수영장. 테니스 코트. 시내 가까이 좋은 주위환경. 학교 쇼핑센타 가까움. By Builter － 캐디락 페어뷰에서 지었음. 가격: 6만2천9백불
4. 존힐스 & 로렌스. 3+1 Br.Rm. 방갈로. 고급주택가. 학교. 쇼핑가까움. 10¼% 몰게지. 좋은 환경. 잘 꾸며진 지하실. 가격 : 13만9천9백불
5. 블루아 & The East Mall. 4 Br.Rm. 방갈로. 넓은땅. 100×160. 교통편리. Fire Place. 가격: 17만5천

★드라이크리닝
1. 주매상: 2천6백. 렌트: 월 $1,000 3년. 순수입: 월5천 가격: 9만불
2. 주매상: 1천5백. 렌트: 월 $1,600 5년+5년 가격: 7만불
3. 주매상: $1,100 렌트: 월 $1,100 5년+5년 가격: 4만불

★도넛츠숍
1. 주매상: 5천5백. 렌트: 2천7백. 1년. 10년옵션. 13만불 다운. 가격: 19만9천
2. 주6일(일요일 닫음) 하루 12시간만 하는 도넛츠숍. 연순수입: 5만불 가격: 12만5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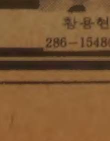
★Hunts 베이커리
쇼핑센터내에 주매상: 8천5백. 3만불 다운. 가격: 13만5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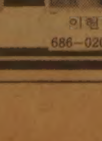
★쇼핑몰내에 Fish & Chips
주매상: 약8천. 렌트: $2,291.66 4년. 15만불다운. 가격: 29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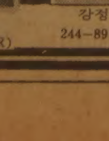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4천5백, 5천5백, 6천5백, 1만4천, 1만6천.

★가게딸린 건물
주매상: 3천, 5천, 6천, 7천, 1만천.

※그외의 여러 곳의 땅과 투자용 건물에 관해 문의하세요.


황용현 286－1548(R)


이현영 686－0207(R)


강정숙 244－8918(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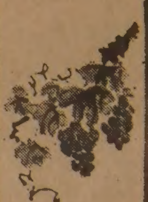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 · 286－1548(R) M3B 1Z3

맛사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아침 한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實名制 強行과 延期는 現實감각 맞춰야

李滿基 <漢大經營大學院長·經博>

아쉬웠던 現實바탕

金融實名制를 내년1월부터 강행하려는 정부측의 주장과 연기해야 한다는 民正黨의 요구가 맞서 정부와 與黨간에 큰 진통을 겪고 있는것 같다. 두말할나위도 없이 實名制의 근본목적이나 취지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金融의 흐름을 파악하여 金融秩序를 바르게 하고, 과세의 형평을 위하여 實名制가언젠가는 도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어음사건이 터져 직접적인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기하자는 집권당의 태도가 오히려 이상하다 느낄수도있다.

그러나 6·28조치에 이어 7·3조치를 발표한 정책당국자들의 태도가 너무 성급했던 것이 분명하다.

實名化를 언제부터 실시하며 그 부작용을 적게하려면 단계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한가를 감히 연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결정했어야 한다. 그 목적이 아무리 뚜렷하고 정당하다해도 이를 받아들일 경제적 현실을 검토해서 그 실시시기를 정해야한다. 예컨대 성장이란 多多益善으로 그 목적이 뚜렷하지만 1년에 50%이든 1백%이든 성장할수는없다. 그것은 실현불가능한 목표이며 쉽게말해 「그림의떡」에 불과하다. 경제정책의 목표는 현실을 바탕으로해야하며 따라서 「現實的當爲」라야한다는것이 정책이론의 ABC이다.

實名制가 아무리 좋은것이지만 당장 실시해도 좋은가에 대해서는 경제현실을 분석해서 결정해야한다. 10년에 걸쳐서 성장할일을 1년에할수없는것과같은 이유이다. 그렇다면 남은것은 부작용뿐이기때문이다.

그러면 實名制를 강행할 경우와 연기할 경우의 得失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의 경제현실이 實名制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實名制의 시기가 당초부터 부적당했다고 보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6·28조치와의 一律背反性이다. 金融實名化는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양성화하여 制度金融으로 취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金利를 인상하면서 實名化를 추진해야 하거나 적어도 實名化를 단행할 뜻이 있었다면 金利인하는하지 말았어야 한다.

꿩먹고 알먹을수야

金利인하와 實名化의 동시단행은 「꿩도먹고 알도 먹겠다」는 욕심과 같은데 결국은 꿩도 알도 먹지못하고 부작용만 남길 가능성이 크다. 정기예금 이자를 36·5%, 가계예금이자를 33·3%나 대폭내렸다. 분리과세의 범위를 적게하고 實名去來까지 요구하게 된것은 저축자에게 한꺼번에 세가지의 부담을 준것이다.

지금도 경제의 안정을 위해 저축이至上의 과제인데 무엇때문에 저축자에게 한꺼번에 세가지의 짐을 지워야 하는가. 결국 저축을 하지 말고, 돈을 金融시장에서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金利인하와 實名化가 발표된 이후 저축성예금은 줄고 (家計綜合預金때문에 줄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家計綜合預金은 當座預金이므로 要求拂預金이다) 요구불예금이 늘었고 전체적으로 예금보다 현금유통이 늘고 있어 한마디로制度金融의 구조가 후퇴되고 있으며, 한편 閑淸지역을 비롯한 부동산투기가 일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筆者는 이미 여러차례 밝혀왔듯이 예금보다 현금이 더 유통되고, 부동산투기가 일게된 책임은 實名制에만 지울것이 아니고 金利인하가 더 큰 요인이 되었다고 보고싶다. 그러나 어느쪽의 요인이 크던 이미 金利인하는 단행해 버렸으므로 이와 一律背反性이 있는 實名化까지 강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함은 당연할 것이다.

實名制를 실시하는데 무엇보다도 선행될 조건은 金利인상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實名制는 연기해야 한다. 경기가 나쁘고 기업의 과중한 金利부담을 덜기위해 과감한 金利인하를 단행했는데, 이를 다시 인상할수 없다면 實名制를 보류하는 것이 옳다. 금리인하 자체가 경기회복을 위한 것이었든, 기업을 위한 것이었든 金融저축자의 果實을 적게하였는데 여기에 實名制까지 실시해서 이들을 金融시장에서 몰아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돈의 흐름을 制度金融으로 모으려는 것이 實名制의 목적인데 결과는 이와반대로 돈이 金融시장에서 떠나서 부동산을 사고 고급승용차를 사며, 소비를 조장하게 된다면 이유야 어디에 있든 둘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즉 金利를 再引上하고 實名化를 하거나, 金利再引上이 곤란하면 實名制를 연기하는 것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實名制는 경기가 좋아서 金利를 인상할 때에 도입해야 무리가 없다. 물론 이때에도 돈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으나, 이는 어쩔수 없는 것이며, 호경기때 實名制를 도입하면 부작용은 적을 것이다.

實名制를 조기에 실시하려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實名制란 금융거래를 記名化하는 것인데 여기에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는가. 보완이란 결국 부분적인 實名制를 의미한다. 實名制를 조기실시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보류하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단계적 실시를 뜻한다.

이미 이자의 종합과세계획은 후퇴했으나 배당에 대해서는 명분을 찾을만큼 종합과세의 범위를 약간 늘렸다. 사실상 이것만으로도 實名制는 「김빠진 맥주」 꼴이 되었다. 과세의 형평도 찾지 못하면서 무엇때문에 實名制를 도입하는가를 생각하면, 김이 빠진것이 틀림없다.

부작용最少化 절실

實名制의 타격은 은행예금의 감소도 들겠으나 증권거래쪽이 더 크다. 우선 증권투자자들이 투자의기밀을 누설시키는것을 가장 싫어할 뿐아니라, 증권거래절차를 한층 번거롭게 하는데 이에대한 준비태세가 아직 갖추어지지 못한까닭이다. 더우기 불황으로 주식거래가 침체되고 低金利로 채권도 인기가 없는데 모든것을 記名化하면 더욱 침체될 수 박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여론이 이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보완책이란 이유로 부분적인 實名化에 그치고, 종합과세도못하면서 實名制를 조기 강행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럴바에는 차라리 實名制를 전체적으로 연기하는것이 옳겠다.

이에 대해 가장 난처한 것은 정부의 입장일 것이다. 한번 뽑은 칼을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칼집에 다시 꽂는 것이 체면을 손상시킬 것이다. 그보다도 7·3이후 4개월동안 金銀시장에 너무 큰 댓가를 치르게 했다. 당국자의 말대로 이미 부작용은 치를만큼 치렀으니 후퇴하기가 억울하며, 따라서 강행한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논리이다.

더우기 앞으로 언젠가는 해야할 일인데 연기한 뒤에도 정작 실시하려면 또 한번 어려움을 치러야하므로 기왕에 부작용을 치른김에 강행하자고 말하고 싶을것이다. 그러나 불황과 低金利하에서 전면적으로 강행하기도 어렵고 갖가지 보완으로 김을 뺀 實名制를 강행하기 위해 지금의 부작용을 계속시키는것보다는 일단 연기하는 편을 생각할수도 있다.

다음에 또한차례 겪을 부작용의 우려는 호황때나 또는 金利를 再引上하고증권시장의 거래형태의 개선으로 實名制의 준비가 이루어진 뒤에는 훨씬 적게 할수있을 것이다.

그동안 치른 엄청난 부작용을 당국자들이 자인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번에큰 교훈을 얻었다고 본다.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정책은 경제현실을 더욱착실히 검토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참작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여 試行錯誤가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傷處뿐인 「實名드라마」

—現實·名分찾기 나흘…그 實相은

政治部기자 座談

—금융實名去來制를 둘러싸고 정부와民正黨간에 거듭된 陣痛은 이제 국회로 번져 법안 심사 小委구성이 産苦를 치르는등 국회 재무위에서 제2라운드의 진통을 겪고있군요. 법안의 會期內 처리원칙은 서있으나 여당측에서실시기를사실상무기연기한다는뜻을비치고있어實名법안은 앞으로도 一波萬波의고비를 겪을 것 같아요. 우선 지난 며칠동안 숨가쁘게 돌아간 「實名陣痛」의 전말부터 얘기해 볼까요.

—實名制는 금융제도의 개혁적인조치인만큼 이번 국회의 큰爭點이 될것이라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결국26일의 崔明憲·朴鍾寬의원(民正)의 발언을 계기로 實名制파동은 정부여당에서부터 內燃되기 시작했고, 離苦끝에 「실시시기를 포함한補完문제는 국회심의과정에서 다룬다」는 黨政회의의 결론으로 바통이 국회로 넘겨진 셈입니다.

—實名制案이 정부측에서 발표될때부터 민정당은 정부의 소신과는 달리 퍽 회의적이었지요. 그러나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다느냐」로 마음속과는 달리 실시의 반대나 유보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용감한 前衛」를 찾고있었읍니다.

—實名制에 대한 民正黨측의 「계획된작전」은 26일부터 시작됐읍니다. 이날하오 財務委에서 崔明憲의원은 『實名制는 저축의 감소, 證市를 위축시켜 私債를 자본시장으로 끌어모아 양성화한다는 당초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전면실시를 유보해야한다』고 黨政협의를 거쳐 확정된 黨방침에 정면도전을 했지요. 뒤이어 朴鍾寬의원도 실시연기를 강력하게 주장, 야당의원은 물론 보도진까지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어요.

—이들 두의원의 爆彈宣言을 두고 억측이 구구하자 다음날인 27일 金琫泰대변인은 『이들의원들이 黨쪽에서 무슨지시를 받은바도없었고 그렇다고 그들의 발언이 抗命도아니고 黨論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며 『黨內일부경제문제전문가들중엔 반대의사를 가진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의 의사가 黨중진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도 볼수없다』고 알쏭달쏭한 해명을 하더군요.

—李載瀅대표위원도 『의원이 다른견해를 밝힐수도 있지않느냐. 그렇다고 黨이 손해를 입은것도 없지않느냐』면서 民正黨이 자랑하던 一絲不亂한체제에서후퇴하는듯한 발언과 함께 「올것이 왔다」는 式의 담담한 표정을 지어 두 의원의 「意外의 突風」은 黨중진들의 諒解를받지 않았었나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에 알려진 얘기지만 사실 이들 의원들의 발언은 黨司令部의 지시에따른계획적인 발언이었어요.

—實名制가 나올때 民正黨은 時機尙早를 이유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보였다가 정부쪽의 의지에 밀려 그렇다면 黨의 입장이라도 반영해야 될것 아니냐는 주장에 따라 소위 8·17補完조치를 만들었읍니다. 이때 政策관계 고위당직자는 「앞으로 이제도가 또다시 보완되거나 수정되어야할점이 있다면 5% 이내」라고 단정적으로 「完璧」을 자랑할 정도였읍니다.

그러나 시간이지나면서 기업체를 가진 경제의원들, 또는 과거에 정치경험을 가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名分에 實利를 잃어서는 안된다』이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요.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實名制가 실시되면 證市가 마비되고 급격한 예금인출과 함께 換物心理를부채질해 겨우 안정돼가는 물가체재를 뒤흔들게 된다는것이었읍니다. 결국에는 5차개발계획에까지 큰영향을 줄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돌았어요.

—특히 77년 名分에쫓겨 무리하게 실시했던 附價稅때문에 10代선거에서 집권당인 共和黨이 야당보다 1·1%나뒤졌던, 말하자면 「附價稅再版」을 우려하는 빛이 역력했어요. 이들은 實名制가 단순한 경제차원을떠나 정권적차원의 문제로까지 보고있었던것같아요.

—이번 實名制法案의 저변엔 民正黨이 경제부처들믿지못한 점도 작용했다고 볼수 있읍니다.

지난7·3조치를 마무리하던 黨政협의때 정부는 내년 적자를 2천억원정도로 가볍게 보고했어요. 그러나 예산안에서 금년말까지 국채를3천5백억원, 내년도에 5천5백억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이 밝혀지자 黨일부에서는정부가 기만했다는 불만이 나돌기도 했읍니다.

이렇게되자 民正黨측은 독자적으로 지난3·4분기의각종經濟指標들을 모아 분석, 정부측 주장과는 달리 경제가 낙관적인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얘깁니다.

—留保論 촉구한 26일부터 「會期內통과하되 再考」를 결정한 29일까지 나흘간 몸살은 그야말로 드라마였지요. 정부와 民正黨은 實名制를 싸고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 一進一退, 一喜一悲가 엇갈렸지요.

—먼저 26일의 국회재무위에서 崔·朴두의원의발언을起爆劑로 실시留保쪽이 27일까지 상승무드를 타자 이날저녁 權翊鉉사무총장 李鍾贊총무 陳懿鍾정책위의장등民正黨3役은 「실시留保」등 현안문제를 논의하기위해 서울가든호텔서 모였어요.

이자리에서도 실시연기나 보류쪽으로 黨論을 밀고가기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28일에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날아침 黨3役은 李範錫외무장관초청으로 프라자호텔서 조찬을 들면서 외무부의 海外協力體신설계획을 보고받은 후 黃慶植재무장관과 金在益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과 자리를 함께 했지요.

이때까지만해도 黨3役은 黨內의 분위기를 들어 실시보류를 촉구했지만 이들의반응이 의외로 강하더라는 겁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날하오4시께 李총무는 『實名制를 이번회기에 보완처리한다』고 체념섞인 얘기와함께 財務委소속의 柳瓊賢부총무를 국회운영위원장실로 불러 實名制실시 찬성론을 펴도록 지시하기까지했어요.

—정부쪽의 재결집된 의지와 마찬가지로 黨쪽에서도 흩어진 戰列을 가다듬는것같았어요. 한고위黨職者는 이날하오 정부쪽의 要路를 만나 民正黨이 수집한 모든자료를 제시하면서 黨의입장을 설명한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때 보도진에겐 弱勢의 黨입장이 다시 反轉된것같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다음날인 29일 아침 黨政조정회의가 열린다는것이 확인되었지요.

—당시 民正黨 고위당직자들은 거의모두 국회에 있었는데 이날 하오 7시50분부터 정부쪽에서 29일상오에黨政협의를 갖자고 통고가 오기시작, 實名制에대한 黨의 입장이 다시 強勢를 보이고 있다는 느낌을 직감케 했읍니다.

—당초 29일에는 월간경제동향보고회가 예정돼 있었는데도 정부와 民正黨은 이를 취소하고 實名制에 대한 단안을 내리기위해 마지막 會戰을 가졌읍니다.

—中央廳후생관에서 상오8시30분부터 1시간15분간 계속된 1차회의에서는 黨과 정부의 견해가 계속평행선을 긋는바람에 끝내 결론을맺지 못하고 자리를옮겨 2차회의를 갖기에 이르렀어요.

—1차회의때는 참석자전원이 발언하는등 黨과 정부간에 상당한격론이 있었다는 後聞입니다. 1차회의가 끝날무렵 한참석자는 『결론이 나지않아 할얘기가없다』면서 침울한표정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2차회의에서도 양측의 주장은 마찬가지던 것으로알려지고 있어요. 정부측 에선 民正黨이 여론을내세워 실시연기를 주장하는이유를 납득치 않았다는 겁니다. 實名制가 李·張사건후 나온것으로 일반국민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소수 재벌들의 재산은닉을 파악하자는 의도인데 3천9백만국민의 1%인 39만명이 떠든다고해서 이것을 여론으로 볼수있느냐는주장이지요.

名分때문에-實利 잃지말아야

實施시기등 분명한政策 왜못세웠나

—결국 2차례의회과 黨과 정부의 조정案은 名分은 세우고 實은 늦추는것으로 판가름이 났읍니다만 회의후양측의 표정은 모두 담담했어요.

—정부의 實名制실시의지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듯합니다. 언젠가는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없고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실시키위해 85년총선거에 영향을 주지않기위해서라도 84년이전에 시행치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읍니다.

—이와는 달리 국회주변에선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시행한다」는 발표문에 근거를 두고 경제활황에 완전탑피가 어려운 83·84년과 總選이 있는 85년이 지나 86년부터 실시하지 않을까하는 의견이 한때 나돌기도 했읍니다.

—여당측이 實名制를 사실상 무기연기한다는 방침을세움에 따라 民韓黨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요. 실시가전제되지않는 법안은 심의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지요. 이때문에 30일의 재무위에서 법안심사小委구성이 다시 陣痛을 겪고 있어요.

—정부와 여당이 實名制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자 당초 야당측에서도 방향을 잡지못해 얼떨떨한 표정이었읍니다. 국민당은 처음부터 전면반대를 분명히했으나 民韓黨에선 黨內異見으로 뚜렷한지침이 서지않은상태에서 이문제에 임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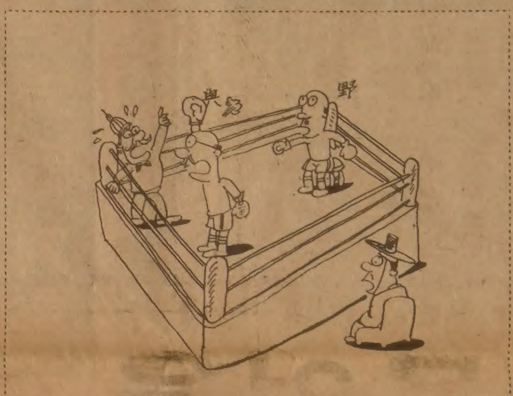
—民韓黨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정치공세로 나올 움직임을 보이면서 實名制문제로 우리경제에 악영향을미친 관련자의 책임문제를 거론할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야당측은 아직도 정부와 民正黨이 이번회기안에 實名制법안을 통과시킬것인지 아니면 어물어물하며 통과를보류한채 그대로 계류시킬것인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民正黨의 眞意를 탐색하고 있읍니다.

—아뭏든 이번 實名制진통으로 정부는 경제각료 몇사람의 탁상공론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없이 시행하려다 상처를 입게 됐다는 큰 교훈을 남겼다고 볼수있어요.

—어쨌든 實名制에관한 陣痛이 하루 속히 매듭져야 해요. 진통이 길면 길수록 국민경제, 나아가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이지요.

實名制를 하든안하든 또실시시기를 어느때로하든 분명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인것같습니다.



메아리

모든것은…

金昌悅 <編輯委員>

『모든 것은 콜롬부스로부터 시작되었다』

리처드·아머라는 美陸軍의 예비역 대령,한국전에서 무공훈장을 받은 하버드博士가 쓴 역사책의 이름이다.

35권의책을쓴 그에게는『모든 것은 몽둥이와 돌멩이로 시작되었다』는 저서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 소개된 이 책은 몽둥이와 돌멩이로 싸우던 원시시대로부터 20세기에 이르는 戰爭史다.

그가 쓴 책의 제목들은 가볍고 유머러스한 그의 저서내용을 잘나타낸 것이지만, 나는 그 제목의 발상이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한다.지금 나타난 현상은 여러갈래라 해도 거기에는 시작이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알쏭달쏭한 實名制의 신문보도를 보며, 그의 말투를 잠시 빌고 싶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모든 것은 李哲熙·張玲子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초여름 李·張사건의 수사검사들이 텔리비전에 직접 출연하여 수사경위를 밝힌 일이 있다.

그 때 수사의 실무책임자는 이런 말로 맺음말을 대신했었다.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검사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젊음」과 「정의감」, 그 말뜻은 알만했지만, 어딘가 당혹스런생각이 들었다. 죄지은 사람이 아니라, 그를 수사하는 사람이 「결백」을 밝혀야 하다니…. 고충어린 그 말에서 사건이 몰아 온 충격의 파장, 불신의 깊이를 실감한듯했다.

時系列의 선후로 보아, 實名制는 그런 충격, 불신풍토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충격이 정책결정의 한 동기였으리라 짐작해보는 것이다.

이 實名制에 대하여도, 주무장관은 텔리비전에 직접 출연하여 정책내용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질문을 받았다.

질문중에는 장관취임이 겨우1주일인데 어느틈에 그런 정책을 마련했느냐는 것이 있었다. 장관은 취임은 1주일이지만, 경제정책을 다룬지는 20년이 넘는다는 뜻으로 대답했다.

말뜻은 알겠으나, 역시 좀 당혹스러웠다. 질문이 문제삼은것은「1주일」이지, 「20년」의 온축은 아니다. 검찰의 범죄사건 수사가 「젊음」과 「정의감」만으로 되는것이아니라고하면, 「20년」을 내세운다고 해서 「1주일」의 의문이 확풀리지는 않는다. 그런뜻에서, 앞서의 질문은 政策管理의 본질적인데를 찌른것이다. 장관의 답변은 핵심을 벗어나 있다.

그여성질문자의물음은經濟人이아니라 生活人의 상식에 비추어서 당연한 의구심이다. 그 의구심이 정당했음은 그사이 實名制의換骨奪胎과정으로 증명되었다. 그렇기에 實名制는 事事件件 「보완」이 필요했다. 그것도모자라서 施行날짜까지 「보완」한다고한다. 「보완」이란 말뜻마저아리송해질 판국이다.

내가 느끼는 의문도 그같은 상식이상의 것은 아니다. 實名制의 「實」이 어떤지, 「名」이 어떤지의 논의는 식견있는 이들에게 맡기면 그만이다. 그러나 걱정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패턴」이다.

내가 이해하기에, 實名制法은 성립시키되그 시행은 유보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방침인 것 같다. 『實』은 늦추고 『名』을 살린다는 신문의 표현 (30일자 본보 3면) 그대로다.

이 방식은 어딘가 의료보험 統合문제를 닮았다. 작년 국회에서 정부는 의료보험 統合法을 금년 국회에 내마고 약속했었다. 덩달아 국회는 같은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실현불가능한 줄을 알면서 약속하고 결의했던 뒤끝에, 금년 국회는 常委하나가 마비되는 진통을 겪었고, 會期末 (12월18일) 까지정부가 법안 -그것도 試案을 내마고 또 한차례 약속하고, 결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작년의 약속과 결의의 「實」은 없어지고 「名」만 남은 꼴이다.

地方自治制도, 경위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圖式에 들어맞는다. 地自制의 법은 있는데 그 시행은 유보되고 있다. 憲法의 규정은 明明白白한데, 그 與件충족의 노력은 볼수 없고, 與件미비를 말하는 소리만 높다. 역시 「實」은 없고 「名」만 있다.

이것이 「새로운패턴」이다. 「實」과 「名」은 번번이 따로논다.

實名制, 의료보험, 地自制는 11月國會에 부각된 이슈다운 이슈다. 그 셋은 바로 제5공화국이 제시한 3大指標 正義·福祉·民主에 대응하는 항목을 지닌다. 當否·贊反은 둘째치고, 이들 안건에 관련된 정책立案의 신중, 그 처리의 떳떳함을 아쉽게 생각하는 까닭이 이것이다.

「새로운 패턴」을 보며, 아머의 말투를 다시 한번 빌자.

『모든 것은 「實」과 「名」으로 시작되었다』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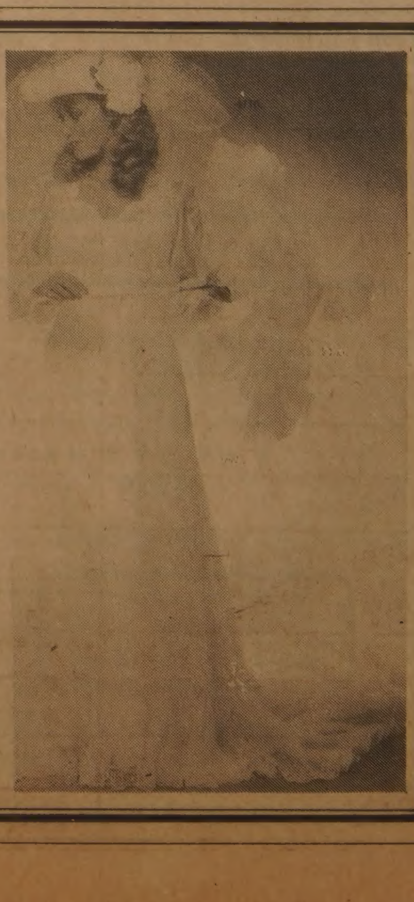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陸上 한국新 또 3개

모두 7개 田京美 女400m허들·池貞美 女7種서

전국陸上선수권大會 폐막

韓敏洙(남자 투포환) 4번째 更新

제36회 전국육상 선수권대회가 30일 서울운동장서 폐막, 국가대표인 田京美(이화여대)를 비롯해 韓敏洙(성대) 池貞美(경남은행) 등 3명이 한국신기록을 수립, 모두 7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田京美는 이날 여자 4백m허들서 61초75를 마크, 작년 6월 東京아시아선수권대회서 자신이 수립한 62초16을 0·41초단축하고 한국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남자 투포환서 韓敏洙(성대)는 15m34를던져 지난 마산체전서 자신이세운 14m91의한국기록을 깨뜨렸으며 금년시즌 들어 4번한국신기록을 경신했다.

미개척 종목인 여자7종서 池貞美(경남은행)는 4천9백44점을 획득, 작년 5월 종별선수권대회서 金順蘭이 세운 기록을 1백73점 오버했다. 이날열린 대표선수평가회 남자 2백m서 張在根과 金相文은 21초21, 22초27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고 여자2백서 牟明姬는 24초66을 마크했다. 메달이 가장 유력시되는 金福柱는 1천5백m서 1분49초99를 기록, 그의 건재를 과시했으나 金鍾鎰은 넓이뛰기서 7m73으로 부진했다. 투창의 梁股寧은 61m96으로 크게 부진, 대회5위 기록에도 미치지못해 실망을 안겨주었고 李相役시 투원반서 48m18을던져 1위를 차지한 金善花의 기록 48m92에도 뒤졌다.

◇田京美의 力走
◇여자4백m허들서 61초75로 한국신기록을세운 田京美의 力走.

韓電·延大 4強선착

전국축구 각각 住宅銀·海龍 제압

韓國電力과 延世大가 住宅銀行과 海龍을 각각물리치고 4강에 선착했다. 韓電은 30일 효창구장서열린 제37회전국축구선수권대회 9일째 준준결승전서 住宅銀을 승부킥 4-2로 눌렀고 延世大는 강호 海龍을 1-0으로제압,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韓電은 전후반 90분을 득점없이 무승부로 끝낸후 바로 실시된 승부차기에서 선축 金鍾世 李龍柱 金一淵 南性鉉 4명이 내리골을 성공시킨 반면 住宅銀은 1번 朴彩和의 슛과 4번 李亨鎬의 슛이 韓電GK 朴泳權의 선방에 걸렸다. 또 대학팀중 유일하게 8강에 오른 延大는 전반13분 海龍수비 宋俊復이 방심한채 GK 田榮賢에게 백패스하던 볼을 王善賢가 가로채 결승골을 만들었다.

◇제9일전적
▲준준결승전
한국전력 0-0 주택은행 〈승부차기4-2〉
연세대학 1(0-0 1-0)0 해룡

아시안게임硏究員 體育部 75명확정

체육부는 29일 제9회 아시안게임에 파견할 각부서별 조사연구원 75명을 확정했다. 오는11월19일부터 12월4일까지 개최되는 제9회 아시안게임에 파견될 조사연구원은 체육부 5명을 비롯, 서울아시안게임 조직위 10명, 서울올림픽조직위 11명, 경기단체임원 13명등 모두 75명이다.

서울팀、東京 대파

北京市 팀과 쟁패

亞洲도시 女子농구

【홍콩=聯】 제1회 아시아도시간농구선수권대회에 출전중인 서울여자농구 주니어팀은 29일밤 5일째 경기에서 사실상의 日本국가대표인 도오꾜팀을 69-57로 대파, 4승무패를 기록, 역시 도오꾜팀을 격파한 北京팀과 동률1위에 올랐다.

이날밤 九龍반도 맥퍼슨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열띤 경기에서 서울팀은 단조로운 지역방어와 슈팅불발의 도오꾜팀을 전반에서 32-26으로 리드했다. 그러나 후반에서는 서울의 개인지역타이트방어와 중거리슛의 정확성에도 불구하고 후반시작3분께 34-34의 첫번째 타이를 이루었고 다시 40-40의 두번째 타이를 이루는 긴장을 자아냈다.

이날 경기에서 서울팀은 마닐라경기에서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 6개팀이 참가하고있는 이 대회에서 서울·北京과 더불어 3강으로 알려진 도오꾜팀이 서울에게 짐으로써 2승2패를 기록했고 약체팀인 홍콩 마닐라 콸탄(말레이지아)팀은 각기 1승3패를 기록했다. 서울팀은 오는31일 北京팀과 우승을 다투는데 北京팀은 도오꾜팀을 지난28일 82-64로 대파한바 있다.

◇5일째전적
서울69(37-31 32-26)57도오꾜

西武、中日대파

日프로야구첫우승

【東京支社】 세이부(西武)·라이언즈가 주니찌(中日)·드래건즈를 9-4로 대파하고 첫 日本프로야구정상을 차지했다.

◇日本시리즈6차전
西武(4승2패) 004 000 212 — 9
中日(2승4패) 004 000 000 — 4
▲홈런=오오다(大田·3회) 가따히라(片平·7회) 테리(7회·이상西武)

대한민국舞踊祭 大賞「넋들임」

안무 曺恩美 개인 金賢慈 金明順

음악상엔 姜碩熙씨

29일 폐막된 제4회대한민국무용제에서 최고상인 大賞은 國立舞踊團의 「넋들임」이 차지했다. 30일 무용제운영심사위원회(宋範 金文淑 林聖男 安濟承 李盾烈 任英濟)는 또 안무상에 曺恩美(현대무용단 「탐」)의 「…」, 개인상에 金賢慈(송준영무용단) 金明順(애지회), 음악상에 姜碩熙(현대무용단 「탐」)의 「칠동무늬」, 미술상에 곽대웅(현대무용단 「탐」)을 결정발표했다. 상금은 大賞1백50만원 안무 70만원, 연기 각60만원 미술 50만원이며 안무상및 연기상 수상자에게는 해외시찰의 특전이 주어진다.

◇金賢慈

◇姜碩熙

프로야구 三美보강

海外동포 드래프트 優先權

4팀서 1명씩讓渡

프로야구 6개구단주들은 29일 82년시즌 최하위를 기록한 三美·슈퍼스타즈의 전력보강책을 해외교포선수드래프트에 우선순위를주며 해태를 제외한 4개구단이 三美전력강화에 도움될 선수를 1명씩 三美에 트레이드해 양도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三美측이 요청한 仁荷大졸업선수선발권은 3년간 연고제도를 고수한다는당초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않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三美의 요구와 각구단의 의견을 조정, 트레이드 대상선수를 결정케된다.

주간女性 구독신청 533·2361

한국、金3個 기염

美오픈유도 姜義錫·尹益善·金鍾榮

趙容徹은 銀

美國오픈 유도대회에 출전한 한국팀은 30일 열린 경기서 금메달3개, 은메달1개를따내 기염을 토했다. 71개국이 출전한 이번대회서 한국은 엑스트라 라이트급서 姜義錫(쌍용)이 日本의 후지사와·마사오를 판정으로눌러 우승했고, 하프라이트급의 尹益善(유도대)은 美國의 로노도우를 판정으로 물리쳐 우승했다. 또한 라이트급서 金鍾榮(제선고)은 미국의 샘·마이클을 누르기 한판으로 제압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부제한급 결승서 趙容徹(유도대)은 일본의 후지하라에게 허벅다리 후리기 한판패를 당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代表팀 得點力부족

美초청축구 코스모스와 2차戰도져 1-0

한국대표팀은 30일 馬山공설운동장에서 열린 韓美수교 1백주년기념 초청축구 최종 2차전에서 美國최강 코스모스에 1-0으로 패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전력평가를위해 브라질 에스포르테에 이어 코스모스와 경기를 가진 한국은 4게임 모두 패하고 득점력부족현상을 드러냈다. 4게임에서 대표팀은 득점 2, 실점6을 기록했는데 슈팅은 항상 상대보다 많았다. 코스모스는 이날 후반20분 스트라이커 키날리아(이탈리아)가 결승골을 기록, 2승을 올렸다. 馬山공설운동장에는 이날 2만5천의 관중이운집했다.

◇제2차전
코스모스 1(0-0 1-0)0 한국대표

金榮煥에 霸權

전한국테니스 盧甲澤돌풍 막아

金榮煥(대우)이 고교최강자 盧甲澤(마산고3)의 돌풍을 잠재우고 제37회 전한국테니스 선수권대회 남자단식의 패권을 차지했다. 30일 6백여명의 관중이운집한 가운데 장충코트에서벌어진 대회최종일 남자단식결승에서 金榮煥은 한때 盧甲澤의 서브 앤드 대시에 고전했으나 침착한 경기운영으로 3-1(6-4, 6-1, 3-6, 7-5)로 승리했다. 한편 여자단식에서는 실업 2년생인 李順玉(일신방직)이 전국가대표 趙恩玉(국민은)을 꺾고 영광을 안았으며 노장 楊正順은 여자복식과 혼합복식에서 우승, 2관왕에 오르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날 金榮煥은 긴 스매싱으로 盧甲澤에 네트플레이의 기회를 주지않고 盧의 범실을 유발, 1, 2세트를 쉽게 잡았다. 그후 金榮煥은 盧의 각서브와 발리에 휘말려 3세트를 3-6으로 내주고 4세트서도 0-4까지 리드당하는위기를 맞았으나 로빙등으로 역습을가하며 조급해진 盧의범

◇최종일결승전
▲남자단식 金榮煥(대우) 3(6-4, 6-1, 3-6, 7-5)1 盧甲澤(마산고)
▲여자단식 李順玉(일신방직) 2(0-6, 7-5, 7-6)1 趙恩玉(국민은)
▲남자복식 金泰洙·俞鎭先(울산공대) 3(6-3, 6-1, 6-1)0 秋憲基·崔鍾鉉(명지대)
▲여자복식 楊正順·趙恩玉(국민은) 2(6-4, 6-4)0 李順五·金善淑(조흥은)
▲혼합복식 朱元洪·楊正順(육군·국민은) 2(6-1, 6-1)0 李成建·高惠京(건국대·단국대)

世界 남녀排球대회 선수단 귀국報告會

세계남자(10월·아르헨티나) 및 여자(9월·페루) 배구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한국남녀대표선수단 귀국보고회가 30일하오 泰陵선수촌 본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 李圭昭·田好寬 남녀대표팀감독들은 『세계배구가 전위3명만이 공격에 참여하는 종래의 패턴에서 탈피, 선수전원이 공격과 수비에 참가하는 토탈배구로 탈바꿈하고있다』고 밝히고 『한국이 세계상위 클라스에 진입하기위해서는 체력을 보강하고 4~5년간의 장기계획에의해 장신선수들을 육성, 개발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코 6百번째골

브라질 프로蹴球

【리오데자네이로AP=聯】 브라질축구의 스타플레이어 지코는 29일 그의 프로생활에서 6백번째 골을 기록했다. 그의 6백번째골은 그가 소속한 플라멩고팀과 마두레이라팀간의 경기에서 후반에 터졌는데 지코는 이 경기에서 2골을넣어 플라멩고팀이 5-0으로 완승하는데 수훈을 세웠다. 플라멩고팀은 지코에게 기념패와 트로피를 선사할 계획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宋順任·金連玉조 決勝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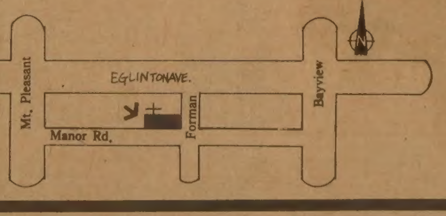
싱가포르오픈테니스 印尼 완파

싱가포르오픈테니스대회에 출전한 한국의 宋順任·金連玉조는 30일 3일째 여자복식 준결승서 인도네시아의 수타르노·메이스키조에6-1, 6-3으로 승리, 결승에 진출했다고 협회에 알려왔다. 남자복식의 李龍洙·郭龍雲조는 인도네시아의 위조노·스타리조에 4-6, 3-6으로 패퇴했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종교서관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714 BLOOR ST. W.
535-1920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초청합니다·충현교회부흥성회안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강사 : 박경남 목사
1982년11월17일(수)~21(주일)저녁7시
240 Manor Rd, Toronto, 446-1211·483-0695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영어설교 오후1:30 오후 2: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밤9시 기관모임 3:20 주일저녁 4:20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희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오전)토,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재철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주일영어 1:00 주일성경 1:00 주일예배 2:00 수요예배 7: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00	63 Dunblaine	488-4141
은성장로교회	장은덕	주일오후 2:00	8 Amroth Ave. (at Danforth & Woodbine	266-8820(R) 694-9691(교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전11:00 주일오후 1:00 금요오후 7:3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636-1724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금요오후 9:00 성경공부 2:20	502 Bathurst	245-4980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수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446-1211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M. CH. 79	1183 Davenport Rd.	535-8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첫 농아牧師의 錦衣還鄕

서울 蓮池洞교회 姜主海씨의 人生

가시밭길 20년…美서 牧會學석사 學位

6백여 농아도 가르치며 「사랑의 새삶」

22일 상오11시 서울鍾路區 蓮池洞교회에서 열린 장로교서울노회의 목사 안수식에서 한 농아가 목사가 될것을 서약, 눈길을 모았다. 手話통역자의 손가락놀림을 따라 서약문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발음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만은 누구보다도 진지했다. 농아 姜主海씨 (29·서울江南區 論峴洞165의18)가 우리나라 최초의 농아목사로서 「사랑의 인생」을 여는 순간이었다.

姜목사의 지난20년은 가시밭길이었다。유복한 가정의 장남으로태어난 姜목사는 「엄마」, 「아빠」를 부르기 시작할 무렵,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귀에서 멀어져갔다. 부모들은 3살이 지나서야 아들의말이 늦지 않고 발음이 어둔한 것을 알고 병원을 찾았으나 늦었다.

이때부터 姜목사와 어머니 全仁燁씨 (55)의 눈물의 인생이 시작됐다。全씨는 鍾路區新橋洞에있는 농아학교까지 아들과 등하교를 같이했다. 다행히 총명함은 잃지않아 고교과정을 수석으로 마쳤다. 全씨는 교사에게서 手話를 배워 밤이면 아들의 「말하는 공부」를 열성적으로 가르쳤다. 姜목사도 어머니의 피눈물나는 지도에 따라 뼈를 깎는 훈련을 계속했다。점점 입놀림이 자연스러워졌고, 이젠 힘겹기는 하지만 유창하게 의사표시를 할수있게 됐다.

그러나 목사가되려고 한 것은 아주 우연이었다. 어릴때부터 영락교회부설 농아인교회를 다녔지만 목사가될 생각은 없었다. 어느날 농학교 담임교사가 장래희망을 물었다. 「교사」라고 대답했으나 어둔한발음때문에 교사에겐 「목사」로 들렸다. 처음엔 당황했으나 차츰 「목사가 되자」는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 자신처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농아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뜻있는 삶으로 여겨졌다.

서울농학교를 마치고 장로교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대학공부는 그에겐 정말 어려웠다. 4년간 책과 호흡을 같이한 끝에 신학교를 졸업, 장로교 신학대학 4학년에 편입, 첫농아대학생이자 국내 최초의 농아신학생이 됐다. 다음해 졸업과 함께 목사고시에도 합격했다.

姜목사는 이에 만족치않고 장애자에 대한 선교방법을 배우기위해 77년 미국유학을 떠났다。세계유일의 농아대학인 美워싱턴가 주데트농아대학에서 1년간 영어를 익힌 다음 미주리州 스프링필드에 있는 센트럴바이블대학 4학년에 편입, 다음해 학사학위를 받아냈다.

이곳에서도 유일한 농아학생이었던 그는 밤을 새워 공부를 했다. 급우들이 노트를 대신해 주기도했지만 강의를 듣지못하는 그는 거의 혼자 책과 씨름해야했다.

80년 센트럴 바이블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에 입학, 3년간의 시련끝에 지난 5월6일 「목회학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학위를 딴 것이다. 姜목사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농아목사는 20명미만이고 신부는 단한명이 있을뿐이다.

姜목사는 지난6월중순 귀국, 현재 영락농아인교회에서 6백여명의 농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밤에는 교회부설신학교에서 신학과 농아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다。20여년간 받은 은총을 사랑으로 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최초의 농아목사가 중요한것이 아니지요。농아들에게 자신과 희망을 심어준 것이 보람입니다。장애자는 사회의 조그마한 배려만있으면 정상인에 못지않은 생활을 할수있으니까요』

3년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박사과정을 밟겠다는 姜목사는 「이웃에 대한 사랑」만이 장애자에게 삶의 의욕을 심어주는 열쇠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姜秉泰기자】

◇말할수도 들을수도없는 逆境딛고
듣지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극복, 우리나라 최초의 농아목사가된 姜主海씨와 어머니 全仁燁씨。

奬學金 半으로 준다

—내년 大學街 副業難속 찬바람 불듯

문교부서도 豫算70%깎아 충격

金利 특혜없어 法人마다 허덕허덕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내년도 장학금이 절반이상으로 격감된다. 매년 늘어오던 장학금이 이처럼 줄어드는 예는 우리나라 교육사상 처음있는일로 교육계에 큰충격을 주고있는데 이는 전국1백91개장학법인의 장학금재원 (기본재산6백80억원) 이 지난2년간 계속된 금리인하조치로이자수익이 절반으로 준데다 문교부가 책정한 83학년도대학생장학금 예산마저 70%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빚어진것。

이때문에 전국의 국·공·사립대학에서는 내년에 장학금수혜대상자를 전년도에비해 절반으로줄이거나 지급액을 반으로 깎아내리지않으면 안될형편이다。

이에대해 교육계인사들은 『장학금은 교육기회의 평등이란 관점에서도 점차 확대지급돼야 한다는데 줄어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과외금지조치이후 계속된 경기불황, 대학생 부업부족상태등으로 대학생들이 자력으로 학비를 벌기회도 없다고 지적, 사회각계에서 장학사업을 적극 도와야 할것이라고 역설했다。

30일 문교부가 전국 1백91개 장학법인을 상대로 조사한 내년도장학금지급계획에 의하면 대부분법인의 장학금 재원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조정작업을 진행중이라는 것。

이들 장학법인들은 지난7월부터 수익금의 격감으로 재단운영에 곤란을 겪어오면서도 장학금지급이 「교육사업」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금리에 특혜등 정부당국의 정책적인 배려를 기대해왔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자 법인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장학금지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게다가 문교부가 전국의대학생을 상대로 지급하는 장학금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70%이상인 무려 8억6천4백만원이나 깎아내려 3억5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문교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무역협회 회원상사들이 출연한 기금1백4억여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온 사학협동재단의 경우 82년에 모두 3억7천5백90만원의 장학금을 전국 4백34개학교 6천51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해왔으나 83년도는 반이상이 깎여1억5천만원정도밖에 지급할수없게 되었다는것。

교수연구비도 82년에 6억여원을 지급했는데 83년도는 반이 준 3억원정도밖에 주지못할 형편이다。

재단측은 1인당 지급금액을 현재수준으로하고 인원을 줄일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종합대의경우 각 단과대학별로 1명씩지급하고 대학원의 경우 석사·박사과정 각 2명씩 주던 것을 사회현황과 관계있는 경상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대학과 순수 농·공·상·수산·해운고에 국한해 1명씩 장학금을 도와줄 예정으로있어 대학에따라서는 받지 못하는 곳도 있을 것같다는것。

7백50명에게 6억여원을 지급해온 5·16장학회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졸업생수만큼 2백여명을 새로선발했으나 내년에는 반이 준 1백명정도밖에 뽑지 못한다。

한국로터리장학문화재단은 2백45명의 학생에게 1억1천4백만원을 지급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예금수익이 6천5백여만원밖에 되지못해 수혜자가 1백50여명으로 줄어들 전망인데 「수혜자를 현재수준으로 하느냐」 「지급액수를 줄이느냐」는 문제를놓고 이사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출연기금 86억원으로 학생 1백15명에게 등록금과 연구보조비조로 월 6만원씩 모두 1억8천만원을 지급해 온 한국과학재단은 83년도기금수익이 금년보다 5억원이 줄어들어 해마다 10여명씩늘려오던것을 늘릴수도 없게 됐다。

이재단 金亨圭 기금관리실장은 『수요는 늘어나는 상태이고 또 연구보조비도 올려주어야 하는데 이에 응하지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현금리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장학법인들의 타격은 더욱 커질것이라고 말했다。

K대 한관계자는 S재단으로부터 지난해 7명에게 나눠주던 장학금을 내년에는 1~2명밖에 지급할수 없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이 관계자는 또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이 2학기들어 이미 없어진 것이 있다며 83년도는 없어지게 될 장학금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대학생 장학금지급은 82년도 현재 수혜자 5만9백31명에 1백14억4천8백만원인데 이중 정부가 지급하는것은 2만4천6백2명에 55억7천9백만원이고 사립장학법인및 개인에 의한 것은 2만6천3백29명에 58억8천6백만원이다。【鄭在龍기자】

KAL 조종사등 26명 포상

어제 항공의날맞아

교통부는 30일상오 제2회 항공의날을맞아 항공발전에 공로가큰 梁壽錫씨·羅光洙씨등 대한항공조종사 2명에게 銅塔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모두26명의 항공관계인을 포상했다.

李禧性교통장관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2천년대의 항공수요에 대비, 신공항건설을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국민해외여행확대에 발맞추어 자국기의 노선망을 확충할수 있도록 항공협정체결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2천만원 횡령 畜協직원 拘束

【全州】전북도경수사과는 30일 조합원으로부터 회수한 사료대금등 2천여만원을 빼내 착복한 井州시 산업과 축정계 지방축산기원 金亨龍씨 (36)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扶安郡축산협동조합구매계장으로 근무당시인 지난 79년 5월부터 금년 6월19일까지 조합사료 1천6백84만원상당의 사료 4천2백10부대를 몰래 빼내 착복한것을 비롯, 조합원 12명으로부터 회수한 사료대 4백85만원등 총2천1백69만원의 조합비를 횡령했다는것。【聯】

여대생被殺사건 抗訴審

檢察·변호인團 大攻防

鄭載巴군 無期징역求刑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鄭載巴피고인。

여대생朴尙恩양피살사건의 鄭載巴피고인 (22·仁荷大행정학과3년) 에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30일상오10시 서울고법제3형사부 (재판장李瀚九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1심대로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날공판에는 서울고검金炳敦검사와 서울지검동부지청 姜原一부장검사 趙炳吉검사가 간여했으며 卞甲圭 尹泰邦 羅正郁변호사가 변론에 나섰다。

姜原一부장검사는 논고를 통해 『鄭피고인이 이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할만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며 그수집방법도 가장합법적인 절차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혐의된 증거가치를 인정하기어렵다는 변호인측의 견해를 거의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1심판결은 도저히 승복할수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로운증거를 제시하지못하고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에서의 자백을증거로 내세우고있으나 자백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지않아 신빙성이 없을뿐아니라 잠을재우지 않는등 강박심리상태에서 억지로 꾸며낸것이므로 자백의 임의성도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鄭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양심적이고 공정해야할 검찰이 무고한사람을 9개월이나 구속하고있어 억울하기 짝이없다』고 말하고 『검찰이 나를 범인으로 몰아 갖은 수단과방법으로 범인으로 조작하고있는것은 어처구니없고 황당스러운일』이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20일 상오10시。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비닐하우스서 자던 네姉妹 2명 가스中毒死

30일 새벽0시40분께 서울江南區 逸院洞18 權菊潭씨 (42)의 비닐하우스 가건물에서 잠자던 權씨의 4자매가 연탄보일러 아궁이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 장녀 明姬양 (16·淑明여중3) 과 2녀 貞喜양 (15·淑明여중2) 이 숨지고 3녀 京喜양 (9) 과 4녀 順姬양 (8) 은 중태에 빠졌다。

이들 4자매는 이날부모가 江南區大峙洞98 버스종점 부근에서 포장마차를 하느라고 집을 비운사이 콘크리트벽을 뚫어 놓은채 잠들었는데 연탄가스가 베니어판사이로 방에 새들어 변을 당했다。

權씨가족은 逸院洞261에서 셋방살이를 하다가 집이 도로확장부지로 철거되자 지난23일 이곳밭에다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韓英순씨 (36) 가족등 2세대가 살아왔다。

자취하던學生 2명 연탄가스中毒 숨져

【原州】30일상오8시께 강원도原州市台庄2洞1104 황미자씨 (43)집 건넌방에서 자취를하며 공장실습을 하던 경북安東공고3년 김태진군 (18·安東市大華洞662) 과 김승한군 (19·安東郡豊川面葛田2洞449) 등 2명이 연탄가스에중독돼 숨지고 김성현군 (18) 은 중태다。

이들은 安東공고 졸업반으로 지난8월31일 현장실습차 강원도原州市牛山洞 한일전기공장에서 3개월코스로 견습공으로 일해오다 변을당했다.【聯】

무허週刊誌 만들어 업체돌며强賣 구속

서울지검 특수3부는 30일 白南勳씨 (47·서울城北區吉音3洞498) 를 언론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白씨는 지난해1월 서울東大門區新設洞33에 세종공론사란 회사를 차린뒤 허가도 받지않고 같은해 5월까지 「세무」 「노사」란 20페이지 가량의 주간지를 만들어 45명의 업체대표들에게 억지로떠맡겨 모두2백89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白씨는 이주간지를 팔면서 「구독하지 않으면 이주간지에 회사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투로 협박하는 수법을썼다。

流行性 출혈열로 居昌서 1명숨져

【居昌】경남居昌郡主尙面 김말식씨 (48) 가 지난 18일부터 고열 소변장애、발한및 가슴에반점이 나타나는 등의 증상을보여 25일 大邱市 동산병원에 입원, 유행성출혈열이라는 진단을 받고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28일 숨졌다。【聯】

前議員 金濟萬씨

金濟萬씨

전新民黨소속10대국회의원 (서울城東) 金濟萬씨가 29일밤 숙환으로 서울대학병원에서 별세했다。향년50세。유족으로는 부인 朴大順여사와 1남1녀。발인은 11월1일상오10시 서울대학병원 영안실에서 장지는 龍仁공원묘지。 연락처 762·2629

校內시위선동 全南大生 1명구속

【光州】光州西部경찰서는 30일 全南大수학과 3년 張俊燦군 (20) 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大學生會서 集會

「肢體부자유」任用을

法官탈락 철회·師大입학 許可하라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대회원 1백50여명이 30일하오 3시 서울城東區九宜洞 正立회관에 모여 ▲지난번 법관임명에서 탈락된 4명의 지체부자유자들에대해 조속히 임용해줄것 ▲지체부자유자의 사범대입학 불허방침을 철회해줄것등을 요구했다。

서울·釜山·大邱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이들 지체부자유자들은 이같은 요구사항을 법무·문교장관에게 직접전달하기위해 면담을요청하는 한편 당국이 지체부자유자들에 대해 모든차별조치를 철회해줄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商用발급받아 變造 旅券위조단을 手配

대검 중앙수사부는 30일 새로운 수법의 여권위조단 주범 李友一씨 (39·서울西大門區弘濟1洞334) 등 3명을 공문서 변조등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李씨의부인 趙明子씨 (33) 를 해외이주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李씨등은 지난 9월초 李모씨 (29) 로부터 해외취업 여권을 발급받게 해달라는 부탁을받고 일단 적법 절차에따라 상용여권을 발급받아 이여권의 출국목적을 「상용」에서 「취업」으로바꾸어주는수법으로 여권을 변조해준 혐의다。

지금까지 적발된 여권사범은 여권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여권을 발급받게 해주는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적발된 李씨일당은 우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적법하게 발급된 여권의 기재내용중 상용또는 문화여권이란 표기를 이민 또는 취업여권으로 고치거나 여행기간을 멋대로 연장표기,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새로운 수법을 썼다。

한국일보 633·2361

5行뉴스

◆智異山평화제 어제 열려 【晋州】제9회 智異山평화제가 30일 智異山천왕봉과 山淸읍내서 관내 주민등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됐다。【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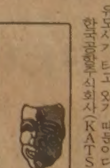
◆反共희생자 合同慰靈祭 조국을 지키다 숨져간 1백만 민간인반공희생자들을 추모하기위한 제2회 반공희생자합동위령제가 30일 상오10시 한국반공연맹전국지부에서 유가족들이 참석한가운데 일제히 엄수됐다。

◆消防안전協실무자교육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전국의 소방관계종사자 2만명을 대상으로 오는11월2일부터 1개월간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나를 따르라

賞받은 航空機유도사 裵仁和씨

파일러트와 手話…"비행기 몰이꾼"



金浦공항활주로에 나가보면 대형 빌딩만한 비행기가 깜빡깜빡하는 노란·빨간 등을 달고 「FOLLOW ME」라고 쓴 조그마한 자동차를 따라 이리뻥글 저리뻥글 도는 것을 볼수있다. 마치 두꺼비가 파리를채먹으려 좇아다니는 것같은 우스꽝스런 모습이다。덩치가 그렇게 큰 비행기가 이처럼 쩔쩔매고 끌려다니는 것은 이 자동차에 활주로이외의 지역에서 비행기의 지상운행을 유도하는 「비행기 몰이꾼」인 항공유도사가 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주식회사 (KATSCO) 의 항공유도사 裵仁和씨 (36·사진) 는 30일 제2회 항공의 날에 비행기를 잘몰고 다녀서 공로상을 받는다. 본인의 말처럼 덩치큰 비행기를 손가락으로 잘몰고 다녀 이 상을 받는 것이다。

비행기와 비행기사이로 비행기를 몰고 다니는 裵씨의 「몰이솜씨」는 한번 볼만하다. 금방 날개가 부딪칠듯한데도 사이사이로 용케 비행기를 잘 끌고 나간다.

裵씨의 비행기 몰이솜씨는 10년 경력에서 익었다。72년 제대후 우연히 취직한 일터가 바로 비행기 몰이꾼이었다。裵씨의 임무는 활주로를 벗어난 비행기의 지상운행을 유도하는 일이다。활주로를 벗어난 비행기는 이때 반드시 유도사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특히 항공기가 머무는램프가 비좁은 金浦공항에선 유도사들의 책임이 막중하다。야생마를 길들이는 곡마단의 곡예사처럼 뛰어난 재능과 감각을 발휘해야 한다。

裵씨등 金浦공항의 50여유도사들은 비행기몰이를 할때 파일러트와 手話를 한다. 손으로 목을 치는 시늉을하면 비행기의 엔진을 끄라는 신호가 된다。이런 국제 공통수화 방법은 50여가지나 된다。

가장 어려운때는 짙은안개가 걷히고 선회하던 비행기가 꼬리를 물고 내릴때다。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기때문에 식은땀이 난다。비행기의 조종사에 따라서는 유도사의 지시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때는 비행기를 계속 빙빙 돌려 오만한 콧대를 꺾어놓기도 한다。그늘속에서 살지만 파일러트에 관한한 큰 끗발을 가진 셈이다。

『이젠 활주로에 착륙하는 모습만 보아도 그비행기의 조종사를 대개 알수있읍니다。비행기몰이 10년에 道가 트인것이겠죠』 【李鎭기자】

컴퓨터 사진식자 서비스안내
● 각종 간행물
● 도서출판
● 신문제작 등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10배 이상의 능률을 올릴수 있는 컴퓨터사진식자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해 드릴수 있읍니다.
☎ : 533 — 2361

희소식
비데오 게임 머신

⊙24시간 써비스
⊙분배율 50% (기계에서 오는 이익)
⊙정기적으로 기계를 체크·업하고 교환해 줌.
⊙바라어티 가게, 밀크스토어, 레스토랑 그리고 간이음식점에서 성환중.
TRANS AMERICAN
☎ : 636 — 0906

제2회 메시아 대연주회

지휘 : 박재훈 박사
독창자 : 이주연(S), 양경자(M. S), 조영호(T)신경욱(B)
합창 : 토론토 한인합창단 (찬조 : 디트로이트 한인합창단, 연합교회 성가대(150명))
오케스트라 • 주로 토론토 심포니 멤버
때 : 1982년12월 4 일(토) 저녁 8 시
곳 : 메시홀(토론토)
■(12월 6 일(월)은디트로이트 오케스트라홀에서 연주)
입장권 : $12(A), $11(B), $8(C)
구입처 : ● 합창단원들과
☎222 — 4662(MRS. 김)
222 — 2901(MR 리)
주최 : 토론토 한인합창단이사회
후원 : 토론토 교역자협의회

목요 연재 한국민족주의 原點을 찾는다

한국일보 특집판

1929년11월3일 光州學生 독립운동

現代史의 現場 ②

題字 原谷 金基昇

羅州驛 여고생희롱이 導火線

「잃어버린 紀念日」부활추진

白髮의 옛主役들 99명만이 생존

1929년 11월3일 光州학생독립운동의 발자국은 아직도 뚜렷하다.

더러는 옛모습 그대로의 현장도있으며 기념탑과 기념관이 지어져 옛일을 알리고있지만, 이제는 백발이된 그때의 주역들이 53년전의 그날을 생생하게 증언해주어 「현장감」은더욱강렬했다.

3·1운동과 함께 우리민족의 양대 항일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光州학생독립운동은, 요즈음 「잃어버린 기념일」을 되찾자는 소리가 높아 다른해와는 또다른의미로 채색되고있다.

지난 53년 정부는 11월3일을 학생의날로 제정, 이날을 기념해오다가 73년 경축일 간소화시책으로 폐지했는데 이 뜻깊은 기념일을 부활하자는 움직임이 지금 光州를 중심으로 폭넓게 일고있는것이다.

光州학생독립운동동지회사무실을 방문했을때는 마침기념행사를 앞두고 이사회가열리고있었다.

『기념행사래야 뭐 별것있읍니까. 옛동지들끼리 모여 기념탑을 돌아보며 우리끼리 그날을 회상하는 정도지요. 그것보다 금년에는 기념일을 부활하자는 운동을 추진할일을 의논하고있읍니다』

동지회 崔貞基회장(70·전국회의원)은 53년전의 그일이 光州학생들만의 운동으로 그친것이 아니라 전국각지의 학생들이 봉기했던 민족운동이었으므로 기념일의 명칭도 「학생독립운동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운동은 각 사회단체의폭넓은 지지를 얻고있다. 광복회, 제헌동지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순국선열유족회, 민족통일촉진회, 4·19회, 4·19의거희생자 유족회등 사회단체들과 성균관, 대한불교조계종, 천도교중앙총부등 종교계가 뜻을 같이해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 (회장 尹宅重)가 구성되었고 이미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제출, 이제 결실을 기다리고있다.

光州학생독립운동동지회사무실은 光州중심지인 黃金洞 56번지 光州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2층에 자리잡고있다.

이 회관은 지난67년 전국적인모금운동으로 지어진 첫 독립운동기념회관이다. 주기능은 도서관이지만 시청각실과 전시실은 각종 문화행사에 요긴하게쓰이고 있으며 1층 사료전시실에는 당시의 판결문, 신문, 관계사진등 사료가 전시돼있어 옛날을 증언하고있다.

『지난57년 동지회를 구성할 당시에는 정회원이 2백8명이나 되었는데 이제는 99명만 남았소』

동지회의 현황을 묻는말에 상임부회장 姜錫元옹(75)은 동지들의 수가 자꾸 줄어드는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光州학생운동은 몇 사람의 주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광주학생들이 모두 참여했던 민족독립운동이었소. 거기에 전국의 피끓는 청년학도들이 혼연히 뛰어들어 대대적인 학생운동으로 발전한 것인데 그것을 光州학생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운동의 의의를 깎아 내리기 위해 일본이 붙인 모욕적인 표현이오』

얘기가 본론에 들어가자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건」으로 불려온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시위운동의 배경에는 당시 광주학생들의 비밀결사였던 醒進會·讀書會·少女會등의 조직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사건몇해전부터 계속돼온 光州高普(지금의 一高)와 光州農高의 盟休, 개고기사건, 야구경기 사건등으로 민족적인 울분이 터질듯 팽만해 있던 터에 羅州驛 여학생 희롱사건이 일어나 도화선에 불이 붙게 되었다는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했다.

1925년에 결성된 醒進會는 악질일본인교사축출·맹휴주동등으로 학교당국과 日警의 눈총을 받던터에, 이른바 불온유인물을 배포했다고 해서 光州高普生 李景采를퇴학시킨 「李景采사건」으로주동학생들이 검속되자 3년만에 해체됐다.

李景采사건으로 복역을 마치고 나온 張載性(光州高普출신·6·25때작고)이 日本에서 돌아와 학생운동의구심체로 조직한것이 讀書會였다.

光州高普·光州農·光州사범등 3학교연합체의 독서회중앙본부를 구성하고 각학교및 학급단위의 독서회도 조직되었다.

각학교학생들의 모금과 金基權씨 (동지회부회장)의5백원출연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비밀회합및 연락장소로 사용하며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한편 全南女高普 (현 全南女高)에서는 張畯性의 여동생 張梅性 (71·서울汝矣島洞 백조아파트B동801호)이 주동이 되어 少女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 남학생들과보조를 같이 했다.

독서회결성때 光州農의 책임자였던 曺吉龍옹 (73·광복회全南지회장)은 『光州학생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1929년5월부터 10월까지 계속된 光州高普와 光州農의 맹휴사건도 독서회의 결정에 의한것이었고 맹휴추진도 독서회 조직을 이용한것이었으며, 羅州驛사건이 터지자 11월3일과 12일 두차례에걸쳐 일어난 대대적인 시위운동도 모두 독서회와 소녀회가 구심점이되었다』고 회고했다.

羅州驛사건은 그해 10월30일 하오6시에 일어났다. 기차통학생인 全南女高普의 李光春·朴己玉·岩城錦子등 3여학생이 羅州驛에서 내려 출찰구를 빠져나갈때 光州中學의 일본인학생 후쿠다 (福田)·다나까 (田中) 등 4、5명이 여학생들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며 희롱했다. 이모습을 목격한 朴己玉의 사촌오빠인 光州高普생 朴準埰(68·朝鮮大대학원장)가 목격하고 『너무 심하지않느냐』고 나무랐다. 일본학생들이 『센징주제에 건방지게!』하고 일축하자 朴소년이 후쿠다소년을 쳤다.

『센징이란 비칭(卑稱)을 들으니 앞뒤가릴 겨를도없이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고 말았지요』

朴원장은 당시를 이렇게회상하며 그날이후 11월3일까지의 경위를 설명했다.

두나라학생간의 싸움에 羅州驛파견순사 모리다(森田)가 끼어들어 朴소년의 뺨을 때리며 일본학생편을 들었다. 이를 본 한국학생들이朴소년편을 들고나섰고 역사를 빠져나와 대로변에서 편싸움으로 발전했다.

모욕을당한 여학생들마저도 가세, 일본학생들은 흠씬하게 맞고 도망쳐버렸다.

『전에도 그런일이 자주있었어요. 우리언니 岩城錦子가 아주 예뻤거든요. 그래서 일본학생들이 기차안에서 늘 우리를 놀리곤 했어요』

30일의 싸움은 다음날 상학열차안으로 이어졌다. 일본학생들이 朴準埰소년에게 보복을 가한것이다. 차안에서 벌어진 난투극을 수습한다는 차장이 한국학생들의 통학권을 빼앗고, 차내에있던 光州日報의 일본인기자가 일본학생들편을 들고는 그날 신문에 편파적인 기사를 게재하자 한국학생들은 더욱 분개했다.

11월1일하오4시께 일단의 일본학생들이 光州驛에 몰려와 통학차를 타려는 光州高普생들에게 싸움을 걸었다. 개찰구목책을 경계로 두나라학생들의 편싸움이 벌어지자 교사들이 달려와 가까스로 수습되었다. 이튿날인 11월2일은 폭풍전야처럼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충돌없이 지나갔으나 3일 드디어 활화산은 폭발했다.

『그날은 明治천황의 생일이자 全南도에서 누에고치생산6만석을 돌파했다고 해서 일본사람들은 축제무드에 들떠있었습니다. 明治節축하식에 동원된 우리학생들은일본국가제창에 묵비권을행사함으로써 우리의 울분을풀어야했지요. 식이 끝나자 우리학생들은 사건을 악의적으로 보도한 光州日報를 응징하자고 신문사로 달려갔는데 도중에서 일본학생들과 충돌하고말았읍니다』

朴準埰원장은 神社참배에서 돌아오던 일본학생들이 光州高普생 崔雙玄의 코를 단도로 찌르고 달아난 사실이 그날싸움의 발단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農高생들과사범학교학생들이 급보를받고 응원차 달려왔다. 싸움이 격화되고시위가 가열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 온시가지를 뒤덮었다.

『평생에 그때처럼 가슴이 후련했던 기억은 없어요. 목이 쉬도록 독립만세를 외쳐대며 온천지를 누비고다니니 마치 독립이 다된것같은 기분이었어요. 소방대가 나와 시위대에 물을 뿌리고 기마경찰이 기를 쓰고 제지했지만 한번 터진봇물은 막지못했지요. 일본사람들은 모두 철시하고 집안에 꽁꽁 숨어들고…』

그날을 회상하는 李光春씨는 눈물을 글썽였다.

이날부터는 거센 검거선풍이 불어닥쳤고 다음날부터는 관련 4개학교가 임시휴교로 문을닫았다. 그러나 讀書會회원들은 지하에 숨어들어 대대적인 시위를 모의、드디어 光州장날인 12일제2차 시위운동을 일으켰다.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한덩어리가되어 독립의 悲願을 목이 터져라 부르짖은 것이다. 당시 光州邑의 인구는 3만남짓했으나 시위에 참가한인파가 1만명을넘었으리라는것이 曺吉龍옹의증언이다.

불길은 금새 전국으로 번졌다. 제일먼저 木浦상업학생들이 光州봉기를 이어받았고 羅州에서는 보통학교 (국민학교) 학생들까지 일어섰다. 咸平·潭陽·康津·麗水·順天·長城등 전남각지에서 맹휴·시위가 꼬리를 잇더니 급기야 불길은 北上, 서울·경기·전북·경남북·충남북·황해·강원·평남북·함남북으로 전국을 휩쓸었다. 전국 1백49개교 5만4천여명이 시위에 참가했으며 퇴학처분 5백82명·자진퇴학 3백52명·무기정학 2천3백30명·강제전학 3백52명·국외유학 1백72명이란 통계수자는 光州에서 일어난학생독립운동의열도를말해주고 있다. 【光州=文昌宰기자】

◇讀書會간부였던 曺吉龍씨。

◇羅州驛사건의 주인공 朴準埰씨。

◇羅州驛사건의 주인공 李光春씨。

◇光州一高교정에 세워진 기념탑앞에서 53년전 그날을 회상하는 光州학생 독립운동 동지회원들。왼쪽으로부터 金基權·尹敞夏·朴賢奎·姜錫元·崔貞基·金永瑾·李基弘·李相哲제씨。【光州에서 鄭在斗기자 찍음】

꺼져가는 民族意識 일깨웠다

光州학생 독립운동의 意義와 특징

金成植 〈慶熙大 명예교수〉

韓國學生運動을 時間的으로 본다면 해방전과 후로 나눌수 있고 또 內容으로 본다면 해방전은 日帝에 抗拒하여 우리民族의 自主獨立을 念願한운동이고 해방후는 독재·독선 또는 不正·부패에항거하며 自由民權을 획득하려는운동으로 구분할수있다.

이제 日帝下의 學生運動에 있어서 光州學生運動을 해방전후 여러學生運動과 비교하여 어떻게 評價할수 있을 것이며 또 그것이 우리의 民族主義사상의 全體 흐름속에서 어떠한 比重을 차지하고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과같이 몇가지로 생각해 보자.

우선 우리는 韓國學生運動이란 커다란山脈에서 몇개의 두드러진 高峰을 말할수 있다. 日帝時代에 東京留學生의〈2·8獨立宣言〉(1919·2·8)〈3·1學生萬歲運動〉(1919·3·1)〈6·10萬歲運動〉(1926·6·10) 그리고 光州學生運動(1929·11·3)과 또 해방후에는〈4·19學生運動〉(1960·4·19)과〈韓日會談 反對運動〉(1964·1965두번) 등이다. 그리고〈4·19〉이후 數十年동안 大小學生運動은 이루말할수없이 많았던 것은 누구나 다아는사실.

이상의 모든 學生運動중에서 나는 光州學生運動을 學生運動의 白眉라고 본다. 사람에 따라서는 의견을 달리할수 있을것이나 내가 유독 光州學生運動을 意味있게 評가하는 이유는 다음과같다.

첫째 이운동은 순수한 學生運動인점이다. 물론〈2·8〉운동도 東京 유학생으로 구성된 운동이며 외부의 권고나 사주를 받은 운동이 아니라는 점은 光州學生運動과 별 다른 데가 없었다. 그러나〈2·8〉운동은 모두가 專門·大學生으로조직된 운동이요、思慮가 있고 知的 수준이 높은 學生、더구나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11명의 平均 연령이 26歲이상임을 감안할때 나이 어린 20세 미만의 中學生으로 부터 시작된 光州學生運動은 실로 장한운동이었다고 아니할수 없다. 春園의 말마따나 밖에 나가면 學生이지만 집에 들어가면 아빠요 남편인 成年學生이〈2·8〉운동에 참가했던 것이다. 아직 철이없을고 父母의 의견에 따르던 어린 中學生이었을때여서 이 운동은 특기할만 하다.

이것에 비해서〈3·1〉운동이나〈6·10〉운동은 旣成世代의 권고, 사주 또는 지도를 받아서 일으켰던 것이요, 해방후〈4·19〉나〈韓日會談反對〉도 이른바 野黨人士들의 政府政策에대한 反對運動이 연달아 있었던것을 생각한다면 많은 자극을 外部로 부터 받았던 것은 두말할것 없다.

둘째로 韓國學生運動의 발상지는 대개 서울이었고 그것이 地方으로 확산되는것을 常例로하고 있는데, 光州學生運動은 地方都市에서 일어나 全國的으로 퍼졌다는점에 특색을 찾을수 있다. 물론 3·15不正선거 반대 운동이 馬山과 大邱등지에서 일어나서 급기야〈4·19〉로 결말을짓게된것은 사실이나〈4·19〉자체는 서울이 이니셔티브를 가진 운동이라고 볼수있다.

나는 光州學生運動을 생각할적마다 1817년독일〈예나〉라는 지방도시에서〈독일 학생 結社運動〉(Burschenschaft) 이 일어나 全獨逸에 확대되었던 것을 연상하게 된다。창조적 운동은 큰도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愛國心이 있는 곳에선 어디서나 일어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지금〈예나〉市 (동독)에는 學生운동기념탑이 세워져있다. 光州에도 같은 기념탑이 건립되어 있는것이다。다만 다른 점은〈예나〉에 있는 塔위에는 旗幟 (黑赤黃의 三色旗)를 높이 든 學生銅像이 서 있다는 것이다.

세째로 光州學生運動은 꺼져가는 民族意識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 일이다。당시 日本은 軍國主義의 絶頂을 向해 거의 도달할 수 있는 地點까지 이르렀던 시기로 안으로는 이른바 좌익을 탄압하여 전향시키든가 또는 一線으로 보내던 시기요 그리고 1931年 만주국을 건설하기 전전년에해당되는 1929년도 저물 무렵이었다。당시 朝鮮人은 총독정치에 굽작 못하고 있을 때였다。이런때에 용감하게 民族運動을 일으켰다고 하는것은 뜻있는 社會人에게 많은 각성을 주었던 것이다。이런民族運動의 脈絡은〈2·8〉에서 시작해서 光州學生運動으로 中興되었다가 해방전까지 地下運動으로 계속되었던 것이다。

네째로 光州學生運動은 日帝下 다른 學生運動과 마찬가지로 民族獨立運動에는 同一하였으나 그규모나 方法에 있어서 종래 보다 色다른 점이 있었다는 데 또한 특색이 있다。그것은 日本 植民地敎育에대한 反帝國主義的인 색채가 농후하였고 또帝國主義下의 被壓迫民族의 해방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다。朝鮮人본위의 교육을 실시할 것과 조선 민족문화와 사회과학연구의 自由를 요구하였다。集會、結社 그리고 출판의 自由도 요구했다。이전 學생운동보다 복합적내용을가진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光州學生運動에 자극을받은 서울市內 女學生들의 (梨花、培花、淑明、同德、貞信、 기타등)〈弱小民族解放萬歲〉〈帝國主義打倒萬歲〉〈被壓迫民族解放萬歲〉〈無産階級革命萬歲〉 등의 슬로건은 종전에 보지못했던 새로운 口號였다。모름지기 日帝에대한 적극적 독립운동을 피해서 社會主義 또는 反帝國主義운동을 전개시켰던 것이다。그러나 日帝時代 모든학생운동이 그러했듯이 光州學生運動은 朝鮮民族運動의 一環으로이해되어야한다。

하여간 光州學生運動은 外部의 사주없이 日帝의 植民政策에 항거하는 光州學生의 獨自的 民族運動이었고 그것이 조선 각지로 파급되어 전문학교 학생에까지 이르렀다는것은 역시 학생운동의 白眉라고 아니할수없다。그렇기 때문에 해방후 政府에서는 11월3일을 學生의날로 정했던것이 아닌가.

그러나 韓日會談이후 學生의 날은 없어졌고 그 기념식도 사라지고 말았다。學生들의 熱情이 統治上 적지 않은 위협스러운 것으로 느꼈던것이다。此際에 우리는 學生의 날을 부활시켜 젊은青年學徒들의 意氣를 한층 자유스럽게 펴도록 해야한다。

고려시대 稀貴本 佛經 「文殊師利…」 보물指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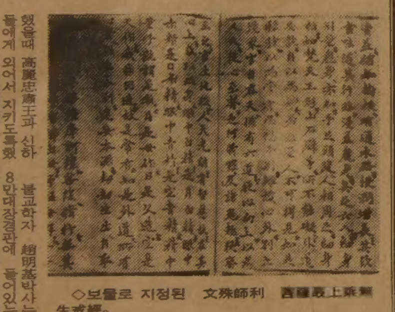
8만대장경에도 포함돼 있지않는 고려시대의 불경 文殊師利菩薩最上乘無生戒經이 梁山 通度寺 경전각에 묻혀있다가 13일 문화재위원회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됐다.

문수사리보살최상승무생계경은 인도의 指空스님(?~1363년)이 金剛山法起보살앞에서 참배했을때 高麗忠肅王과 신하들에게 외어서 지키도록했던 경문. 牧隱李穡(1328~96년)의 발문이 있는 이불경은 고려대장경에 없는 내용이기때문에 불교교리연구와 書誌學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있다.

至正13년 (공민왕2년)에 발간한 이불경은 丹丘道人 業恭이라는 이름과 和應著薛의 글씨가 써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들 스님이 늘 몸에 지니고 읽었던 것을 알수 있다.

불교학자 趙明基박사는 8만대장경에 들어있는 불경외에도 그와 비슷한 양의 주석서가 있는 터에 고려시대에 간행된 원본을 발견한 사실은 불교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높이 평가했다.

通度寺에서 박물관을 짓기위해 經藏을 정리하다가 장경목록에도 없는 무생계경을 찾아낸 性坡스님(通度寺주지)은 이 귀중본의 내용을 널리 불자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보물로 지정된 文殊師利 菩薩最上乘無生戒經。

蘇聯의 韓國學 연구활발

西獨킬大 金淵洙교수 세미나서 밝혀

朴막스·金게오르기 박사 主導

한국어 雜誌·신문도 10種 발간

소련내의 한국인학자들은 대체로 非政治的인분야인 歷史學、言語學、文學분야에서 주로 두각을 나타내고있음이 밝혀졌다.

西獨킬大교수로 다녀간 東歐圈내 한국인들의 동향을연구해온 金淵洙교수 (정치학)는13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강당2층 세미나실에서 가진 「在蘇聯 韓國人의 학술활동」이라는 세미나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하고 『소련의 韓國學은 한민족의 자손에의해 개발된셈이며 그들은 한국어를 공부한후 韓國學에 관한 전문연구에 착수하는 「韓國的인 韓國研究」방식을 취하는점에서 西方의 韓國學학자들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1963년 成大정외과를 졸업한 金교수는 西獨프라이버크大를 거쳐 킬大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西獨韓國學研究所長과 韓國學研究誌발행인으로있다。그는77년부터 79년까지 매년소련、폴란드、유고슬라비아東獨、등을 여행하면서 「北韓의 經濟」와 「韓國의 평화통일을 위한 가능성으로서의 北韓民族主義」 등의 저술을 내놓은 바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그는 『소련의 韓國學은帝政러시아의 韓國學을 계승발전시킨것인데 韓日合併으로러시아의동부지방에 전쟁위협이 강화되자 러시아의 韓半島연구가활기를 띠었다」고 말했다.

그후 1945년 韓半島가 분단되고 소련군이 北韓에진주하자 한국문제전문가들에 대한 필요성이 커져 모스크바大의 東洋學研究所, 레닌그라드大의 東方民族研究所등 科學院의 東方學研究所、蘇聯이 발족했거나 이들이 한국학연구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모스크바大、레닌그라드大、타시켄트大및 이르쿠츠大에서는 韓國語、韓國史및 韓國文學등의 강좌를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6·25가 일어난 1950년에는 蘇聯科學院내에 韓國科가 신설되었으며 1955년에는 東方學研究所내에 韓國史를 연구하는 3부와 韓國語를 연구하는 4부가 신설되었는가하면 한국지역을 연구하는 特別地域科에는 교포학자인 金게오르기박사가 과장을 맡게됐다.

1960년 소련공산당 제22차대회에서는 「現代研究強化」정책을 결의했으며 그결과 1970년까지 韓國과 관련된 40여편의 박사논문과 1천여권이넘는 저술이 출판됐다.

소련의 韓國學은 傳統的韓國學과 政策的 즉現代的韓國學으로 구분할수있는데 이중 전통적한국학인 韓國史學은 한국계학자인 朴막스교수(모스크바大)에 의해 주도되고있다。韓國史중 古代史는 모스크바大의 朴막스교수、M·보로비오프교수 (레닌그라드大)、東方問題연구소의 Y·디보스토크大)가 주축을 이루고있다.

近代史는 역시 朴막스교수에의해 개척되었으며 이밖에 G·티아가이박사(동방문제연구소)、V·쉬파에프교수(모스크바大)와 역시 모스크바大의 한국계학자 黃·I박사등이 대표적인 석학으로 꼽히고있다.

기박사와 F·샤브시나박사가 개척했는데 중요연구분야는 韓民族의 해방운동、日帝下의 韓半島문제등이다. 소련내의 韓國語연구는 1940년대초 타시켄트大에서 처음 강좌가 시작됐으며 레닌그라드大의 A·콜로도비치교수는 1945년韓國語科를 신설하고 1951년에는 처음으로 韓露사전을 출판냈다.

韓國文學에관한 연구는 1960년대초 에레멘코프와 이바노바가 개척했는데 이들에이어 「春香傳」을 번역출판한 트로체비치와 고전문학연구가인 니키티야및 엘리세프박사등이 유명하다.

소련의 南韓에대한 연구는 원래 南韓에관한 사실을 변조하거나 사실무근의 선전을 해왔으나 1970년대초부터 시작된 브레즈네프의 새 韓半島정책에 따라 다소방향이 바뀌고있으며 가장두드러진 연구성과는 V·티호미로브박사의「韓半島통일문제」와 S·수슬리나여사의 「韓國經濟研究」등을 꼽을수있다.

소련내의 한국학연구를 주도하는 한국계학자는 朴막스박사와 金게오르기박사외에도 朴미카엘 (이르크추大)등 사학자들이있으며 정치학자로는 李강박사、金니콜라이박사、경제학자는 朴인준、송인환박사를 꼽을수있다.

소련내에는 한국어출판물도 많아 8개의 잡지와 2개의 신문이 있으며 전국지로는「레닌기치」가 있다。「레닌기치」는 1938년5월 크졸오르다주지방에서 창간되었으며 1956년 전국지로 발전했다.

金淵洙박사는 소련내의 韓國學연구에관한 정보는 학술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할뿐아니라 『앞으로의 對蘇관계개선이 문화적, 학술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계속 주목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梁 平기자】

◇金淵洙교수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광고신청은
광고부로….
토론토 한국일보 : 533-2361~4
만족할만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한국일보 광고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여러분께 보다 친절한 마음으로 신속, 정확히 맡은바 정성껏 여러분의 광고를 살펴 드리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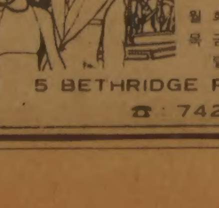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 성 수

봉학농장
무 : $8.00
배추 : $5.00(60Lbs짜리 큰 박스)
총각무, 파, 시금치, 왜무
5개이상 주문시 배달합니다.
김장용·무·배추세일
농장 : 1-775-6256
시내 : 248-6389

서울하우스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짬뽕·냉면
짜장면·잡탕밥 전문
615 BLOOR ST. W. ※일요일은 휴업
☎ : 532-0602 김 신우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한국일보 (특집판)

제3世界의 文學과 마르케스

제3世界 文學의 意味

마르케스의 노벨文學賞 수상 계기로 알아본다

具仲書
(文學評論家)

라틴아메리카 콜롬비아의 소설가 마르케스가 금년도 노벨文學賞을 받은것을 계기로 제3세계문학의 비중을 새삼 평가하는 견해들이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마르케스의 수상이전에도 칠레의 시인 미스트랄, 파테말라의 소설가 아스투리아스, 칠레의 시인 네루다 등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날 이들이 노벨상을 받은 사실은 이른바 제3세계와 연관지어 해석되는 편은 아니었다. 그때까지는 아직 제3세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3대륙을 주축으로하는 제3세계의 현저한 대두는 1970년대 이래의 현실이다. 제3세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共同운명체임을 자각하고 있다. 첫째로 대개 植民地가 되어본 체험을 가지고있다. 둘째로 경제적인 면에서 가난하며 개발도상단계에 있다. 세째로 문화적인 면에서는 민족별로 오랜 傳統文化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통문화들은 현대 세계에서 人間價値에 대한 가장 생생한 인식력을 아직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 西洋의 문화는 서양인들 자신에의해 한계가 지적되었다. 슈펭글러가 〈유럽의 몰락〉을 선언한 이래, 현대 良識의 史學者 토인비도 〈유럽은 몰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치·경제적인 면에 있다기보다 문화적으로 독특성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하였다. 현대 서양문화의 한계와 문제점은 또한 종교계로부터 〈물량숭배에 의한 價値觀의 뒤바뀜〉을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 이러하여 요한23세 교황은 〈경제적 후진지역의 전통문화 앞에 나아가는 인간가치에 대한 생생한 인식력을 잡차 인류 문명을 재건함에 있어 기초로 삼아야한다〉고까지 언급하였다.

이 인간적인 문화의 잠재역량이야말로 제3세계 대두의 精神史的 當爲性이며 제3세계문학의 원동력이된다. 아프리카 케냐의 소설가 조모·케냐타, 세네갈의 시인 생고르, 알제리의 문화이론가 파농, 파테말라의 소설가 아스투리아스, 칠레의 시인 네루다, 이번의 마르케스 이밖에 훨씬 많은 시인·작가들이 그동안 제3세계문학을 앞장서서 구축해 왔다.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지만 종처럼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강대국들의 신식민주의적 작용으로 인해 地球上의 南北 빈부격차가 증대되어 가는 不義, 이 부조리의 현실상황에서 제3세계 문학은 인간가치에대한 신뢰를 저력으로 하며 투쟁하고있다.

국내외적 구조들지니는 정치 부조리에 민중이 갈등하고 소외될 때 작가의 양심은 고뇌로 불타오른다. 마르케스가 〈한 대륙의 삶과죽음〉을 그린 리얼리스트로서 환상적이기까지 했다는것은 환상의 불꽃이라도 날리지 않을수 없을만큼 그 현실이 아팠던 것으로 이해할 수있다. 그러면서 그 고된 작업은 나름대로 그 대륙의 정신적 성숙을 성취해가고 있는 것이다.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곳에서만 조만간 역사의 발전이 전망될 수 있다.

그러면 아시아문학은 제3세계문학에 어떻게 연대되어 있는가. 브라질의 헬더·카마라는 〈라틴아메리카가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빚이 있고, 아시아에 대해서는 형제로서 배우며 따라야한다〉고했다. 아프리카에 대한 빚은 지난날 흑인노예를 수입해 부린 죄이며, 아시아에 대한 존중은 長久한 역사적 체험을 지닌 선배라는 뜻이다. 실로 東洋의 문화적 깊이에 대해서는 멕시코의 탁월한 시인인 옥타비오·파스가 심취하여 탐구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아프리카 문학인들은 불어와 영어로, 라틴아메리카 문학인들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작품을 써왔다. 이점이 그지역 문학을 세계에 더 잘알리게 됐으나 한편으로는 예술적 個性의 확립에 지장이 된 점도 있다. 이런의미에서 앞으로 제3세계문학은 민족의 土着語에 의한 창작에서 보다 精髓를 취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문맥의 결과로서는 한국 民族文學의 입장이 돋보일수있다. 오랜 문화전통 민족의 언어와 문자, 세계양대 강대국에 의해 국토가 分斷된 희생의아픔, 이러한 여건에서 1960년대이래 두드러지게 전개되어온 현실의식의 문학이 축적한 資産은 보여도 보람스러울 만하다.

제3세계문학 안에 펼쳐 오늘날 제3세계문학의 비전은 80년대 한국문학에 새로운 가치체계를 정립시켜줄 수 있다. 문학의 새 活路 타개는 이제 巨視的안목과 균형있는 世界觀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한국문학은 제3세계문학을 거쳐 전체 세계문학에 의의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노벨문학상수상에의 관심도 한국문학의 이러한 새 지향 안에서라야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병든 아내와 가난하게 살아가는 퇴역大領, 그는 비오는 金曜日 코피를 끓이다…

아무도 大領에게 편지하지 않는다

마르케스의 問題作 줄거리

10월 어느 금요일

1900년대 초엽 내란에 참전하여 군자금을 수송한 혁명군 경리관이었던 퇴역대령이 그의 아내와 함께 가난하게 살아가는 곳은 대서양을 한눈에 바라보는 조그만 어촌이다. 똑딱선이 금요일마다 우편물을 실어오는데, 대령은 자신에게 올 「연금통지서」를 기다리는데 지쳐서 뼈만 남은 늙은이다.

대령은 부슬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10월 초순의 어느 금요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코피를 끓인다. 코피는 바닥이 나 있어서 한잔밖에 나오지 않는다. 대령은 천식의 발작으로 밤새 잠을 설친 아내에게 코피를 건네주며 「난 마셨소. 한 숟가락은 실히 남아 있던 걸」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 순간 성당의 종이 울리자 대령은 이웃의 樂士가 죽어서 장례식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낡은 검정색 양복을입고 대령이 집을 나서려 하자 아내는 「특별한 행사여서 정장을한 것같다」고 말한다. 大領은 「이 장례는 특별한 행사요. 우리가 여러 해만에 처음으로 맞는 자연사니까」라고 대답한다. 장례식 행렬이 경찰서 앞을 통과하려 하자 읍장이 말린다. 신부가 항의하지만 막무가내다. 大領은 「우리가 계엄령 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언제나 잊고 있단 말이야. 이 장례 행렬은 반란도아닌데」라고 투덜댄다.

집에 돌아와서 대령은 수탉을 돌본다. 이 수탉은 싸움닭인데 「비밀 회람」을 배포했다는 죄명으로 닭싸움이 벌어졌던 지난 해 1월3일 투계장에서 사살당한 아들의 遺産이라서 대령에게는 자식이나 다름없이 애지중지한다. 1월에는 다시 닭싸움이 있을 예정인데, 아내는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수탉을 팔아버리자고 한다. 대령은 아내가 「값비싼 환상」이라는 닭싸움이 벌어질 1월을 기다리고, 자신에게 오기로 되어 있는 우편물을 15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다.

대령은 우편선을 맞이하러 선창으로 걸어간다. 금요일마다의 한 관행이다. 우체국장이 우편낭을 메고 우체국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다가 대령도뒤따른다. 알파벳순서로 우편물을 칸막이 안에다 간추려 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찾아가기로 되어 있다. 기다리고 있던 의사에게는 신문다발과 우편물이 온다. 그러나 우체국장으로부터 「대령님에게 온 것은 없어요」란 말을 듣고, 대령은 「무얼 기다린 건 아니요」라고 또 거짓말을 한다. 대령이 신문을 읽고 있는 의사에게 「새 소식은 없소?」라고 묻자, 의사는 「검열관이 인쇄를 허용하는 행간 사이의 뜻을 읽어내기는 어렵지요」라고 대답한다. 신문은 부고광고로 가득 차 있다. 의사가 불쑥 「우리는 이제 너무 늙어 메시지를 기다릴 처지도못된다」고 말한다.

저녁 일곱시가 되자 종이 울린다. 종소리가 열두번 울리면, 검열에걸려 「누구나보아서는 좋지 않은 영화」가 들어왔다는 뜻이다. 대령의 아내는 「벌써 1년째 누구에게나 좋지 않은 영화 뿐이었지」라면서 「세상이 썩었어」라고 한탄한다.

다음날 점심때 의사가 대령의 아내를 진료하러와서, 「비밀 회람」을 건네주며 『그게 신문에 나지 않은 소식』이라고 알려준다. 그 종이에는 국내에서일어나는 무력항쟁에 대한 폭로기사가인쇄되어 있다. 의사는 회람을 건네 주며 『돌리세요』라고 말하고, 대령이 치료비 걱정을하자, 『수탉이이기면 계산서를 보내지요』라면서 격려한다.

대령도 「비밀 회람」을 죽은 아들의 친구들에게 돌리기 위해 양복점으로 간다. 「정치 얘기 금지」라는 표어가 붙어 있는 양복점은 그의 아들의 직장이었고, 그의 친구들이 살해되거나 추방된 후 대령이 자주 찾는 유일한 장소이다.

다음 주에도 대령은 어김없이 우체국을 찾는다. 의사에게는 여전히 수에즈 운하 따위가 톱기사인 신문다발이 부쳐져오고, 대령은 그신문을 빌어 읽게 마련이다. 대령이 『검열 실시 이후로 신문들은 그저 유럽 얘기 뿐이야. 최선책은 유럽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우리가 유럽으로 가는 것이야. 그래야 자기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지』라고말하자, 의사는 웃으면서 『유럽 사람들에게 南美란 콧염과 기타와 총을 가진 사람정도지』라고 응수한다. 두 사람은 다정한 이웃이며, 성실한 시민이지만, 애국충정을 논하기에는 이처럼 지쳐있다. 우체국장이 또 단호하게 『아무도 대령님께 편지를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대령은 빈손으로 아내를 보기가 민망해서 양복점으로 가서 코피를 얻어 마신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대령은 역시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다. 아내가 투정을 쏟아놓는다. 『우린 이제 기다릴만큼 기다렸어요. 15년 동안이나 편지를 기다린다는 것은 황소의 끈기에요』 『순서를 기다려야 해. 우리 번호는 1823번이야』 『우리가 기다리기 시작한 이후 그 숫자는 두번이나 복권에 당첨됐어요』 아내와의 대화중에, 대령은 19년전에 의회가 군인연금법안을 통과시켰고, 자신의 청구권을 증명하는데 8년이란 세월을 허비했으며, 연금수혜자대상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는데 6년이 걸렸음을 회고하며, 아득해한다. 의사에게서 빌어온 신문을 샅샅이 읽고 난후 대령은 모기장 속의 아내에게 다가가서 『아직 그 문서는 보관하고 있소?』라고 묻는다. 아내는 군인연금의 조속한 지급을 약속한 법률사무소 광고지와 휴지나 다름없는 일체의 서류를 대령에게 건네준다. 그리고 『변호사를 바꾸라』고 권하며, 『연금을받으면 연금에서 원하는만큼의 액수를 변호사에게 주겠다』고 말하라고 말한다.

대령은 변호사를 만나러간다. 변호사는 2백명의 혁명군 장교에게 귀향여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정부가 약속 한 니어랜디아 조약에 대한 판에 박힌 설명을 늘어놓는다. 『15년 전에는 일이 훨씬 쉬웠읍니다. 당시엔 양측 정당의 당원이 관계한 재향군인회가 있었거든요. 수가 많아야 힘이 세지요』 대령은 변호사의 말에 자신의 처절한 외로움과 무력감을 깨달으며 『내 동료들은 모두 편지를 기다리다가 죽었소』라고 말한다.

변호사도 응수한다. 『누구나 대령님처럼 스무살에 대령이 될 만큼 운이 좋았던건 아니니까요. 게다가 특별자금 배정이 안되어서 정부는 예산을 조정하지않으면 안되었으니까요』 대령도 울화를 터뜨린다. 『자선이나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게 아니란말이요. 우리는 공화국을 구하기 위해 등뼈를 부러뜨렸단 말이요』 『세상이란 다 그런거지요. 사람의 배은망덕은 끝이 없읍니다』 「변호사를 바꾸겠소.

『퇴직연금법이 변호사들에게 평생연금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소?』 지난 15년 동안 대통령이 일곱번이나 바뀌었고, 대통령들은 각자의 내각을 열번이상 바꾸었고, 장관들은 관계 공무원들을 백번은 바꾸었을 터이므로 대령의 군인연금증서는 사실상 정부의 어느 구석에서 잠자고있는지 변호사인들 알수가 없다. 변호사가 이제는 더이상 기다리지 말라고 권유하지만, 대령은 『큰일을 기다리는 처지에 자질구레한 일은 몇백년정도 기다려도 상관없소』라고 응수한다.

11월2일, 대령의 아내는 아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꽃을 갖다놓는다. 묘지에서 돌아와 아내는 천식 발작을 일으킨다.

대령은 가게에서 『약간의 금액이 지난 금요일에 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라면서 외상으로 먹을 것을 구해온다. 『가죽과 뼈만 남은』 대령에게 황폐한 육체를 간신히 움직이는 처지인 아내가 『당장 수탉을 처분하라』고 짜증을 부린다. 대령은 수탉을 팔 수가 없다. 수탉은 대령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며, 아들의 분신이고, 1월에 벌어질 닭싸움에서 이겨야만 고생하는 보람도 있고 함께 핍박받은 이웃들에게 면목도 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착한 아내는 이내 누그러진다. 『우리 처지 때문에 그런는 거예요. 수탉에 먹이를 주기위해 우리 입에서 음식을 덜어가는 것은 죄니까요』 대령은 『아무도 석달 안에 죽지는 않소』라고 대답한다.

어느 날 아내는 허기에 지쳐서 죽은 아들이 입었던 양복점의 주인에게 시계를 팔자고 한다. 『40페소를 받지 못하면 집에 돌아오지 말아요』 양복점에서 대령은 또 아들의 친구들로부터 「비밀 회람」을 건네 받는다. 대령은 차마 시계를 사라는 말을 못한다.

그래서 고치러 가는 중이라고 둘러대자, 아들의 친구가 고쳐준다. 수고료를 묻자 아들의 친구는 『1월이면 수탉이 값을 치러줄테니까요』라고 대답한다. 수탉은 버림받은 대령과 동네 이웃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이며 메시아이다.

大領은 처절한 외로움을 느끼며 "내 동료들도 모두 편지를 기다리다가 죽었소"

그림 鄭駿溶

大領의 꿈과 예감

다시 편지를 기다리기위해 어느날 오후 4시에 대령은 집을 나선다. 도중에 비를만나 대령은 죽은 아들의 代父이고 약장수로 돈을 번 철처한 장사꾼인 사바에게간다. 돈이 너무 많은 사바는 당뇨병으로죽어가고 대령은 허기로 죽어가고있다. 사바는수탉을 9백페소에 팔라고한다.

그날 우체국장으로부터 대령은 『틀림없이 오기로 되어있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大領님』이라는 말을 듣는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옥수수 죽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다. 아들의 친구들이 수탉 모이로 옥수수를 많이 가져온 덕분인 것이다. 『삶이란 이런때도있단』고 부부는 오래간만에 흐뭇해한다.

대령은 수탉을 바라보며 『저 녀석이 우리를 3년은 먹여줄 거야』라고 환상을 가꾼다. 아내는 『희망을 먹고 살수는 없어요』라고 못을 박고, 대령은 『희망을 먹을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람을 지탱시켜 줄 수는 있지』라고 단언한다.

다음날 아내는 옥수수죽을 두 접시나 먹고도 뾰로통해있다가, 결혼반지를 잡히고 돈을 빌어오겠다고 말한다. 대령은 순간, 부부의 사랑마저도 늙고 낡아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제 괘종시계도, 그림도 팔아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 판이다.

그녀는 며칠씩 남비를 끓이지 못해 이웃들에게 숨기려고 돌덩이를 끓인 적도 있는 살림형편을모른체하는 무능력한 남편이 원망스럽다. 대령이 수탉을 팔기로했다고 말하자, 사바는 『지각 있는 짓이다』고 환대한다. 하지만 4백페소에 넘기라고 흥정한다. 물론 사바는 수탉을 9백페소에 되팔아 이윤을 먹을 참이다. 『닭싸움 경기장에서 총알을맞고 죽어나올 위험때문에 수탉이 똥값이되었다』고 얼러대면서, 사바는 대령에게 60페소를 빌려준다.

그날밤 대령은 아내와 쇼핑을 한다. 당구장에서 양복점주인을 만난다. 양복점 주인은 『아들한테서 온 겁니다』라고 말하며 예의 「비밀 회람」을 대령에게 건네준다. 순간 대령은 아들을 쏘아죽인 사내와 눈이 마주치고, 자신이 그 사내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것같아 전율한다.

12월이다. 수탉은 아직도 대령의 아내로부터 「망조 든 새」라고 경원당하고 있지만 건재하다. 어느날 대령은 「막연한 예의 예감」을 믿으며 선창에서 우체국 쪽으로 걸어가다가 투계장 앞에 멈춰선다. 아들의 친구들이 그의 수탉을 가지고 나와서 싸움을 붙이고 있다. 대령은 싸움터에 나가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있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 수탉을 품에 안고 투계장을 벗어난다. 그날 따라 집으로 가는 길이 유달리 멀게 느껴진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울며 말한다.

『그들이 우리 수탉을 빼앗아 갔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수탉을 집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는데도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시체를 밟고서라도 수탉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들 말로는 우리 수탉은 이제 우리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 밤 부부는 아무것도 먹지않고 잠자리에 들어서, 대령은 전등을 손수 끄려고 아내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다음날 점심때 아내는 『당신은 고집불통이고, 완고하고, 인정머리가 없어요』라고 여전히 대령을 타박준다.

대령의 아내는 한 평생 쓰레기만 먹고 지냈는데, 이제는 수탉만한 대접도 못받고 천식을 앓고 있는 자신의삶이 한심스럽다고 느끼는 것이다. 대령은 정식으로 닭싸움이 벌어질 1월20일 오후 3시에 수탉 임자인 자신이 판돈의 20%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요』라면서 아내를 격려한다.

「결코 패배를 모르는 수탉」을 팔지않고 온전하게투계장에 내보내려면 아직 44일이 남았지만, 대령은 미구에 닥칠 희망적인 세월과 영원히 살아 있는 아들과 그아들의 표상인 수탉을 기르며, 완강하게, 정직하게, 그리고순수하게 오늘도 연금편지를기다리면서 살아간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55>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안개속의 집 ㉒

증명하리라. 언제고 반드시 증명해 보이리라. 내가 목석 같지도 얼음장 같지도 않다는 걸.

수지도 이런 결의를 남편과의 사이에 차단기처럼 내리고 돌아누웠다.

어린애 귀바퀴처럼 작고섬세한 찻잔손잡이를 어설프게 잡은 유기사의 투박하고 기름때묻은 손이 떠올랐다. 가슴속이 가만히 감미롭게 떨렸다. 그 속에 거미줄보다도 미세한 현(絃)을 가진 악기를 숨기고있는 것처럼.

이런 나를 목석같다구? 얼음장같다구?

수지의 세모(歲暮)는 눈코 뜰새 없이 바빴다. 기욱을 출장 떠나보내는일은 그녀의 바쁜 스케줄에 끼이지도않았다. 오히려그의부재가 그녀의 사회활동을 자유롭게했다.

바자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수익금도 상당해서 그들이 모자결연 맺은 고아원뿐 아니라 변두리 극빈지대의 어린이들에게 푹신한 털세타와 학용품을 선물하는일도했다. 이 근래의 보기드문 미담을 여성지가 특집으로 크게 다루어주어 그들은 매우 유명해지기까지 했다.

그들이 거의다 사치와 안일과 온갖 향락을 얼마든지 누릴수 있는 상류사회 귀부인들이기 때문에 미담의영향력은 더욱 컸다.

얼마든지 손톱에 물들이고 살수있는 부자집 마나님들이 밤새워 뜨개질하고 재봉틀을 돌리고, 수를 놓고, 때 맞춰 젓담그고, 밑반찬을 마련하는 일을 자그마치 일년동안이나 꾸준히 계속한 끝에 그만한 규모의 바자를 열수가 있었고 그만한 액수의 정재(淨財)를 마련할수 있었다는 기사의 내용은 확실히 감동적이었지만 사실과는 달랐다.

수지만해도 남대문, 동대문시장을 휘젓어 자기몫의 상품을 마련했고, 그나마 금전적인 액수를 맞추는데만 급급했지 물건을 취사선택하는데는 매우 무성의했었다. 딴 회원들이 바자에 낸물건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까지는 알아보려고도 안했지만 대동소이했으리라는건 상품의 질로 짐작이 갔다.

물론 상류사회 귀부인들이 벌인 일이라는 품위를 생각해서 각자 아끼던 골동품이나 대가의 서화를 한두점씩 터무니없는 고가를 붙여서 내놓는 것도 잊지않았다.

그건 딴 팔다남은 상품과 함께 회원들이 도로 사기로 했으니 결국 각자 돈으로 내놓은 아까운 물건 돌려받게 돼서 좋고, 수익금은 수익금대로 올라서 좋고, 좋은 일 투성이었다.

심심풀이겸해서 한번 해본 보람있는 일이 실상보다 훨씬 과장되고 미화되어 세상에 알려지니 그들은 세상의 눈을 통해 자신들의 한 일을 되비쳐오며 새삼스럽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번 헐벗은 아이를 안아주고나면 손을 씻고 또 씻고 옷 갈아입고나야 자기아이를 안아줄수있고, 고아와 자기 자식을 같은 식탁에 앉히는 일은 감히 상상도 할수없는게 그들의 실상이었지만 세상에 비친 그들은 선녀인 한 그들은 선녀였다. 그들은 한동안 세상에 비친 자신의 허상을 자신의 참모습으로착각하며 자연스럽게 선녀의 꼭둑각시 놀음을 해냈다.

일단 성공했다는 느낌이저마다 들었고 저마다 신바람이 났다. 그들은 그런 짓거리가 지닌 허상의 묘미와 영향력에 깊이 감염되기 시작했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주동한 수지를 존경스러워하기까지했다. 역시 교수라서 다르다고 그녀의 강사직까지 빛을 보기 시작했다.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
1560 Bayview Avenue Toronto,
Tel: (B)488-2444 (R)759-4560

OHIP

당신이 일을 않더라도 당신을 위해 일합니다.

온타리오내 대부분 주민들은 그들이 일하는 직장플랜을 통해 OHIP이 커버됨을 만족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장을 잃었을 경우, 또는 단체플랜에 가입이 될수 없는 때는, 당신은 직접 OHIP에 연락해서 계속 커버할수 있읍니다. 단지 당신은 직접지불방법에 조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환경에 따라, 당신은 필요한 금액을 지불함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읍니다.

당신이 일을 않더라도 계속적인 OHIP이 카버됨을 확실히 하십시요. 그리고 가까운 OHIP 사무실에 연락을 하십시요. 장소는 당신지역 전화번호부 정부부문 푸른종이에 적혀 있읍니다.

Ministry of Health
Ontario
Larry Grossman, Minister

스타 미용실

동부영업
11월15일 (월)부터
예약전화
741-4410(평일)
267-0333(월)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저희 스타미용실을 많이 애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11월15일(월) 부터 동부 한국식품 플라자내 2800 Eglinton Ave. E. 에서 매주 월요일 영업하게 되오니 동부에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동부영업시간 : 오전10시~오후7시
2800 Eglinton Ave. E.
(동부한국식품 플라자내)
※동부 예약은 미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영업시간 : 화요일~토요일
오전9시~오후8시
2437 Finch Ave. W.

THE KOREA TIMES 한국일보 Toronto

케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꼭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9, 6개월 : $50, 년 :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팀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a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일요일(오후4시부터) 쇼핑은 25불 할인받는 삼복식품으로 오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님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복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이 영두·이건하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仁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광고문의 533-2361

테 레 비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Dish Washer구함. 점심시간: 월-금 11:30am-2:30pm
◉경험있는 요리사 구함. 저녁시간 4pm-11pm. 주6일
114 Laird Dr. 전화: 421-6016(오후 2:30이후)

경험있는 남자 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풀타임.
전화 : 598-2546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한국음식에 조예가 있으신분, 약간명 모집함.
658½ Bloor St. W.
전화 : 537-0432

용모단정하고 경험있는 스토아 헬퍼 구함.
풀타임 혹은 주말(Jarvice & Bloor)
전화 : 922-4135

경험있는 가게 헬퍼 구함.
전화: 266-6355 스카보로지역.

경험있는 재봉사 구함. 나이론자켓 만드는데
좋은 월급. 휜치와 웨스톤 근처.
전화: 746-0054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전화: 923-4354 Mr. 김

출퇴근 하실 베비씨터 구함
◉스카보로지역
전화: 431-0852

용모단정하고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하루 7시간. 전화: 532-6143 · 532-9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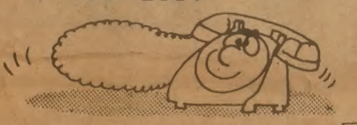
Pioneer 라디오수리 기술자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전화: 445-8530 케니 or 하이디.

캐쉬어 구함.
Keele & Lawrence 근방
전화 : 248-6442 신

경험있는 여자 또는 남자 캐쉬어 구함.
시간: 오후4시-밤11시까지. 풀타임 가능.
전화: 625-1620(미시사가 지역)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 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 1시~10시 Mr.최·김

기 타

적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적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매 매

당구장 매매 함.
비데오 머신들과 스넥바 있음. 좋은 Plaza내.
전화: 531-9216(오후5시-밤12시) GEORGE

음식점 매매 함(260명의 좌석이 있음)
6,000 Sq. Ft. Bloor & Bathurst 근처
전화: 961-4451 KADRI

버라이어티나 그로서리 가게를 새로 차리는 분께
물건과 장비를 실비로 드리겠음
전화: 368-9018, 366-0960

빌딩과 잘 꾸며진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이층에 살림집이 있음. QUEEN STREET EAST.
아스킹 : $79,000+스탁 전 화 : 465-1005 MR. Kung

깨끗하고 전망좋은 Convenience Store 매매.
주매상: $4,000~$4,500 Video Arcade(licence 있음)
전화: 560-0612 MR. CHUNG

전망좋은 그로서리가게, 토론토 북쪽 15분거리.
주매상: $6,600이상, 아스킹: $79,000 렌트: $880
3년+10년 옵션 전화: 833-6318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벡커 프렌자이스 급매.
3208 Danforth Ave.
전화: 699-6583

Dry Cleaning depot. 매매
년매상 : $50,000
전화 : 787-1549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좋은 가격으로···.
전화 : 783-0134 오후4시-8시사이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자동차 매매. ▲'73 PONTIAC PARISIENNE, 350 Auto, 쌍 마후라, Power Handle, P.B, P.W, 에어콘, 76000마일, Excel Con, 여자운전, CEPT, $1,850, ◉전화: 241-6392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200-$3,500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음. 관심있으신분 직접 내방바람.
272 Jane St. (at Bloor)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아파트 달린것)
Mr. Jones 전화 : 889-8654
W.R. CASE REALTY LTD.

버라이어티·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Bloor & Indian Rd.
전화 : 535-6838

◉선물용 Gift Shop 쇼우 케이스(4ft.) 5개
◉중간 유리 Shelving 3개
전화 : 656-0867

- Smoke & Gift shop
  주6일 open 주매상 6,500~7,000
  리스 1990년 렌트 1,100(2층아파트 포함)
- Coffee & Snack shop Shopping mall내
  6일(open) 주매상 10,000 리스 4년+5년 Option.
- 드라이 크리닝
  다운타운 고급주택가에 위치함.
  주매상 3,000불 렌트 1,000불 리스 9년
- 도낫스 주 9,000불 리스 15년

A.E. LE PAGE Real Estate 전화: 741-9170 Mrs. 우.

자동차를 파실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533-2361

사람찾음

수원사시던 홍정애씨를 찾읍니다.
전화: 294-5750 MRS. 리.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1층 Flat - 1Bedroom Apt. 다운타운지역
차고·세탁기·히팅등 포함 월 $430
독신자 또는 부부. Christie×Dupont(532-9581)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있음. 스카브로 지역
(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콘도미니움 For Rent or Sale. ◉12월1일부터.
Victoria Park & Danforth(써브웨이 건너편)
◉렌트: 월 $700(관리비 포함) ◉전화: 694-4812

사무실 대여함.
외환은행 불루아지점 3층 890sq.ft.
전화 : 535-8801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138 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Barrister and Solic 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불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 279-7774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차 매 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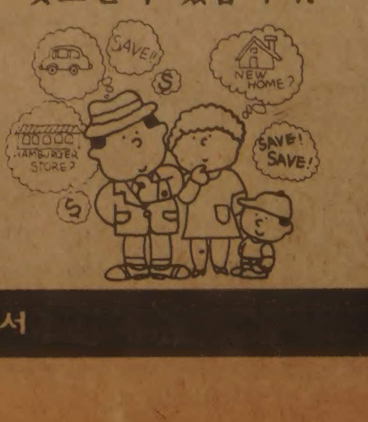
선물센타

비·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5 일에 $ 15 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